

홍성문차

계 간

봄

홍성문화원

제22권 1호 통권 150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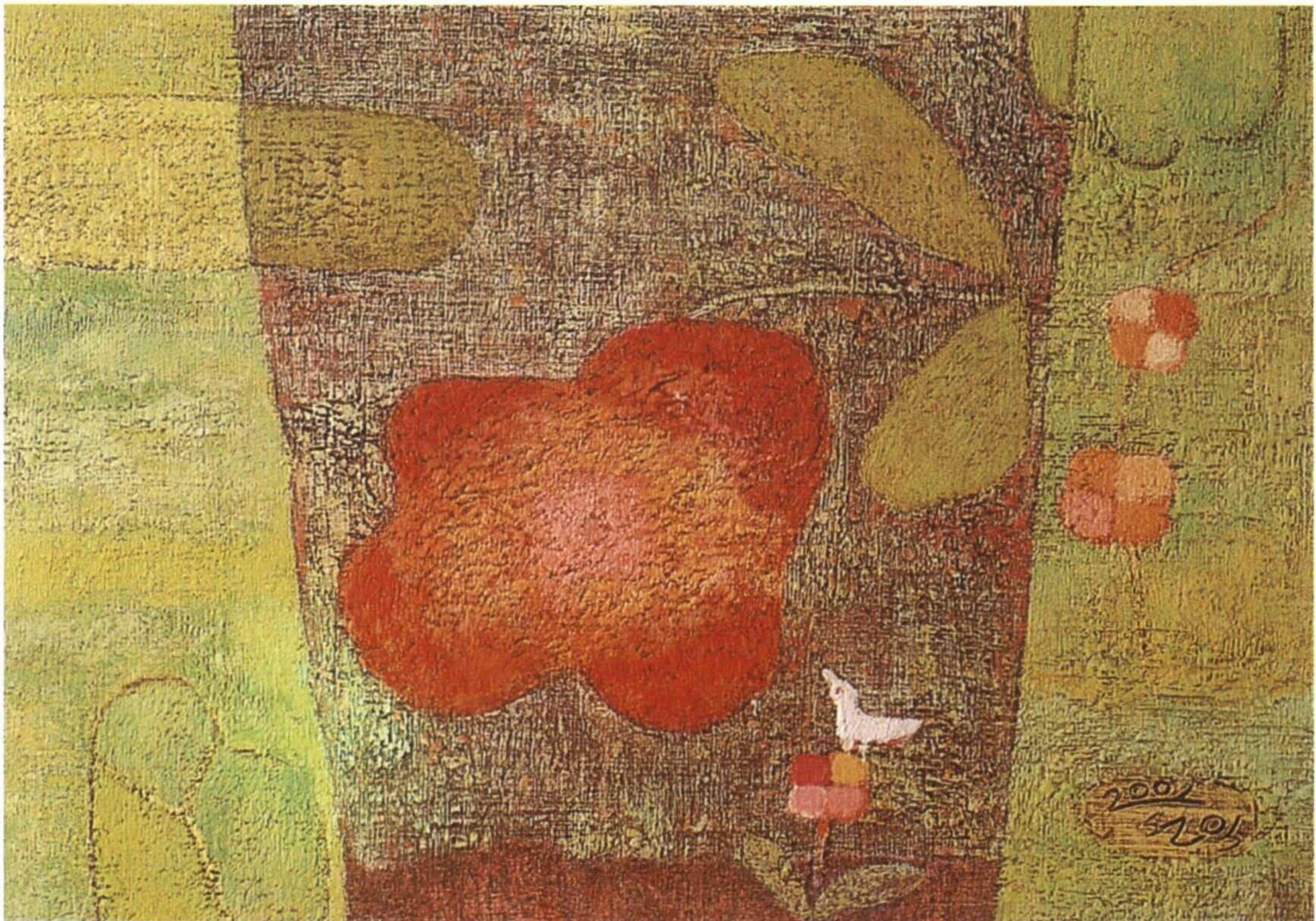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발행일: 2003년 3월 (봄호)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041) 632-3613)

·인쇄처: 조양인쇄사 (☎ 041) 632-2363)



신 년 사

— 새 봄을 맞으며/이하영/2

홍주골 사람사는 이야기⑩

— 홍성교육의 등불, 이수영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권기복/14

우리 문화 길잡이

— 우리의 전통한옥/김경식/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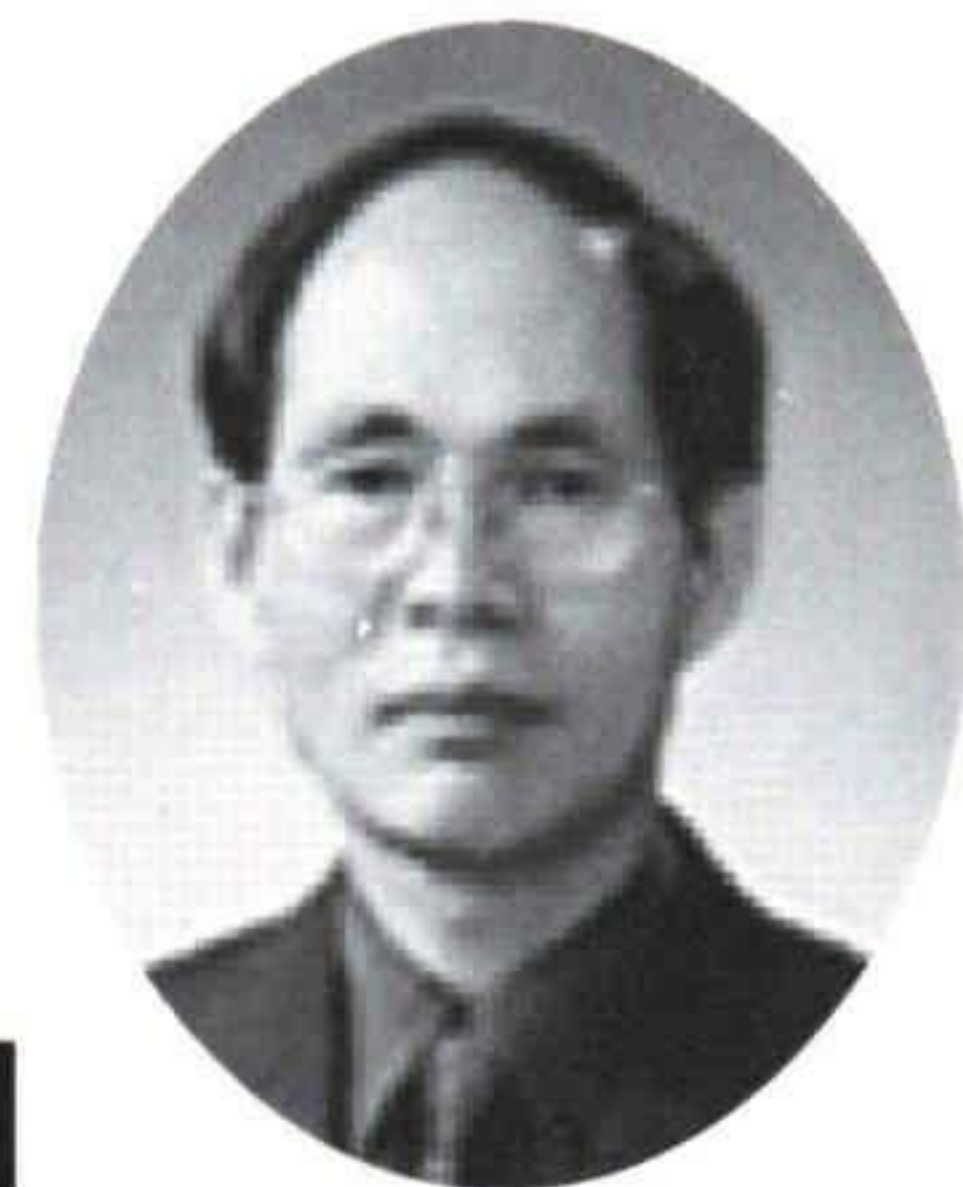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편집부/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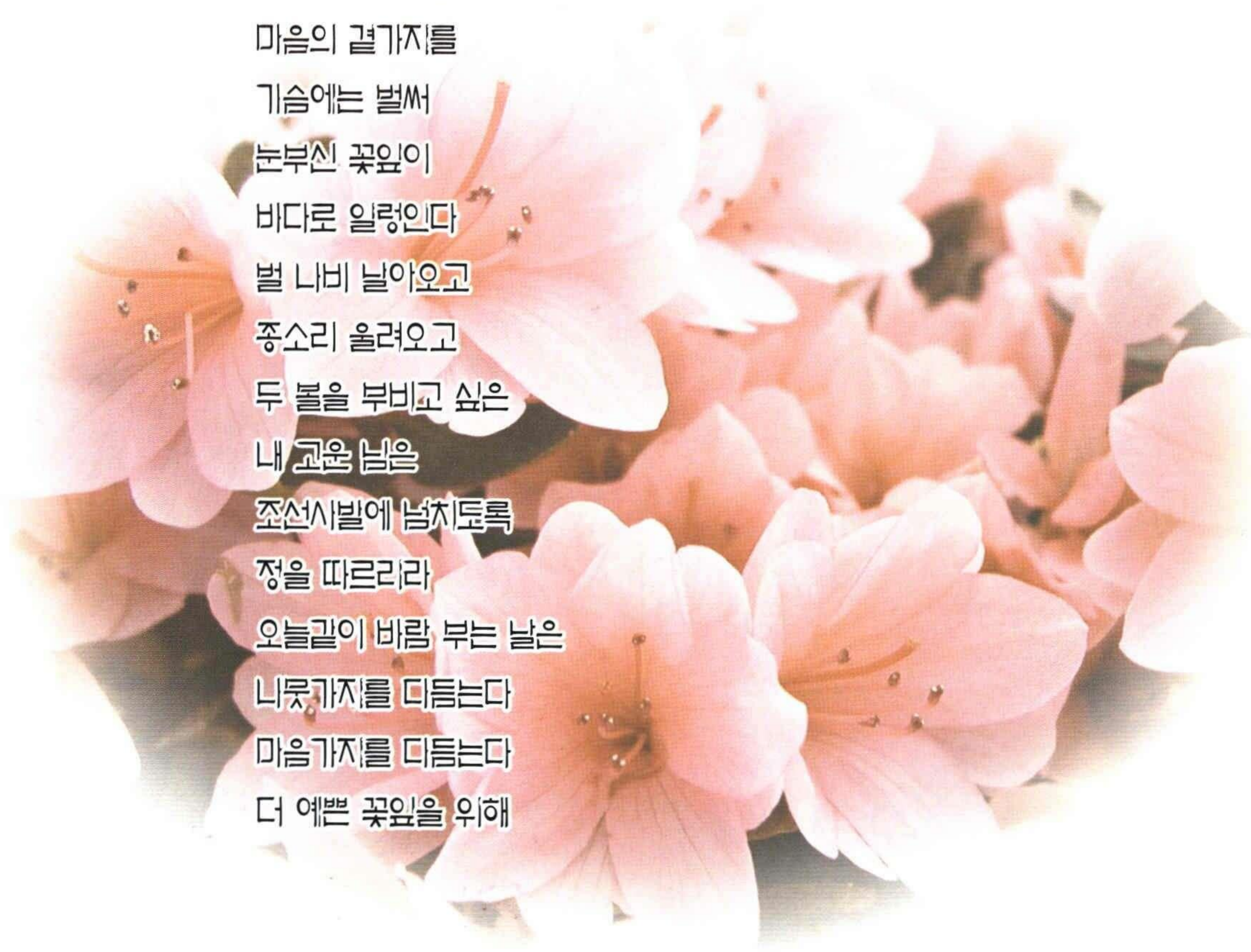
꽃을 피우리라

이봉연

시인·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회원



봄날을 생각하며
니뭇가지를 다듬는다
마음의 곁가지를
기슴에는 벌써
눈부신 꽃잎이
비다로 일렁인다
벌 나비 날아오고
종소리 울려오고
두 볼을 부비고 싶은
내 고운 님은
조선시발에 넘치도록
정을 따르리라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은
니뭇가지를 다듬는다
마음가지를 다듬는다
더 예쁜 꽃잎을 위해



홍성문차

2003/봄

계간/팔지 않는 책

- 2 신년사 | 새 봄을 맞으며 | 이하영
- 3 우리의 다짐 | 주변을 살펴보고 살자 | 편집부
- 4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의 이모저모 | 편집부
- 6 홍성의 마을제 【洞祭】 ⑩ | 노신제
- 장곡면 산성리 1구 원골 마을 - | 김정현
- 10 우리고장의 명산을 찾아(2) | 홍성의 명산 용봉산(龍鳳山) | 정태봉
- 14 홍주골 사람사는 이야기 ⑩ |
- 홍성교육의 등불, 이수영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 - | 권기복
- 19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 한승형(韓承亨) | 배동순
- 22 우리 문화 길잡이 | 우리의 전통한옥 | 김경식
- 24 내포제 시조를 따라서 ② | 내포제 시조 | 박병규
- 28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③ | 용봉산 ① | 조원찬
- 32 담 안에서 띄우는 편지 | 담 안 토끼 이야기 | 고광철
- 34 백두산기행 ② | 백두산을 다녀와서 | 최규원
- 37 건강 | 생명의 기원 | 김용신
- 38 思索의 샘 ② | 현실을 알고 내일을 가꾸려면? | 편집부
- 40 홍주마당
구름과 인간 | 김임무
『내포지역 현대미술제』의 위상 | 김정명
샌드위치 | 구명희
- 46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 | 편집부
- 47 편집후기 | 표지화 작가소개 | 편집부
- 48 회원모집 안내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2003년 3월
통권 150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 041-632-3613
634-9659

인쇄처 · 조양인쇄사

표지화	작가소개	편집부	원장	원작
접수일자	2003.5.30	접수번호		재

새 봄을 맞으며



이 하 영
(홍성문화원장)

새로운 세상을 열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는 지금, 희망과 새로운 기운이 샘솟는 봄기운이 천지에 완연합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새시대에 걸맞게 각 분야에서 문화의 싹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첨단산업사회로 다가갈수록 정신세계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의 것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기에 우리의 미래도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꽃이 피어나고, 다음세대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정신을 전수시킬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의 마당을 펼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며 살자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나를 추스르기 어렵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삶의 저변을 더듬게 된다. 그러나 희망과 진실을 지향하는 보다 강한 바른 삶의 용기를 지닌다면, 가족과 우리 이웃에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평이한 삶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자.

길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가, 축대가 무너지면 통행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인가, 기울어져 가는 전신주나 위험한 곳에 키가 큰 수목은 없는가,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사회현상, 부조리한 이웃의 생각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가로 연계될 것이다.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남의 고통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극도의 이기심으로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자기 파멸까지 도래한다는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홍성읍사무소와 군청에서 200m이내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전부터 비롯되고 있다. 폐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밤이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무슨 행동을 하며 밤을 새우는지, 아침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길가의 폐가에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3~4년전부터 비로소 그것들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여름철에는 건디기 어려

울 정도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원주인을 찾아 말이라도 해볼 양으로 찾아보았으나,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나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부락대표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같은 생각인데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만 말한다. 폐허엔 잡풀과 넝쿨이 뒤엉켜져 쓰레기가 더 늘어나고, 밤이면 들고양이들이 쥐들을 따라 들끓고 있다. 담까지 무너져만 가고 낮에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처참한 현상인데, 이런 경우 누가 다스려 줘야되는 건지... 보다 더 나아가 홍성군 전체의 폐가 상황을 조사해봐야 될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지. 안되면 그 때는 나도 집 버리고 이사할 수밖에 없겠지. 이사해서 살 집도 그 곳이 대한민국일 텐데...

그렇다. 일찍이 지상에 유토피아는 없었다. 악과 병, 고(苦)가 전혀 없는 인간의 천국과 정토(淨土)는 존재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인간의 지(知)나 덕(德)도 불완전하다. 인간의 판단력과 의지력도 불완전하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정치는 무슨일 하는 것인가. 행정은 누굴 위해 하는 일인가. 국민은 무엇을 위해 세금을 내고,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즐거운 삶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

문화원의 이모저모

| 편집부 |

□ 2003년 신년교례회 □

세찬 바람이 부는 추위 속에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1월 3일(금) 오전 11시에 각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매년 갖는 자리지만 늘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화합의 길을 열어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올 한해도 예년보다 더 나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장들께서 힘써주길 바란다.



2003년 신년교례회

□ 제42차 정기총회 □

홍성의 문화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홍성문화원 회원들을 모시고 1월 20일(월) 오후 4시에 정기총회를 문화원 2층에서 가졌다.

문화원 2002년 사업결산과 행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함으로 보다 발전적인 행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2003년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항과 의견들을 서로 나누어 검토하는 자리였다.

□ 제2회 정월대보름민속 한마당 □

우리고유민속의 가치와 재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민속놀이가 살아나는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행사로 올해 두 번째 군민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민속 한마당 행사를 맞았다.

첫 회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듯 모든 게 미숙하였다. 지금도 미숙한 점이 많지만 소중히 간직해야 할 민속행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신밟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풍물, 제기차기, 연날리기, 부럼 깨기 등의 프로그램을 몇 가지 더 넣어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



지신밟기

하였다.

요즘 시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 눈으로 보는 영상시대에서 빠른 세상의 변화를 느끼며 자라고 있다.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 등에 빠져, 밖으로 나가서 하는 운동이나 독서 등 청소년들에게 있어 필요한 건전한 생활의 풍토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농구나 야구, 축구 등의 현대 스포츠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 외 우리민속놀이를 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만이 아닌 기성세대들의 참여도 많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놀이에 있어서 서로에게 벽이 될 수 없음을 느꼈다.



널뛰기

어린 시절 이후로 해보지 못했던 놀이를 어른이 되어서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기분에 들떠 있는 기성세대들과 영상세대들이 하나된 모습이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힘써 주시고 도와주신 가좌동 3구 주민여러분과 홍성경찰서, 홍주의사총관리사무소, 홍성소방서, 홍성풍물연구회, 주부대학풍물팀, 또래소리, 홍주향토문화연구회 등 단체 여러분과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달집태우기

□ 홍성의 문화유산 CD-ROM 제작 □

홍성문화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2년간 제작한 홍성의 문화유산 CD-ROM은 홍성의 문



홍성의 문화유산 CD-ROM

화유적,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각종 문화행사에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 역사를 바르게 알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북돋우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전국적으로 홍성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문화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신 제

- 장곡면 산성리 1구 원골 마을 -



김정현 동화작가 · 광동초등학교 교사



노신제를 설명하는 유영수씨

- 조사 일자 : 1998년 2월 5일 (음력 1월 9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1구 (이노춘씨 댁)
- 제 보 자 : 이병홍(남, 73세, 보통학교 졸업,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1구 원골 마을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이병홍씨는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노신제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다. 지금도 노신제를 주관하며 지내고 있다.

- 제 보 자 : 유영수(남, 70세, 보통학교 졸업,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1구 원골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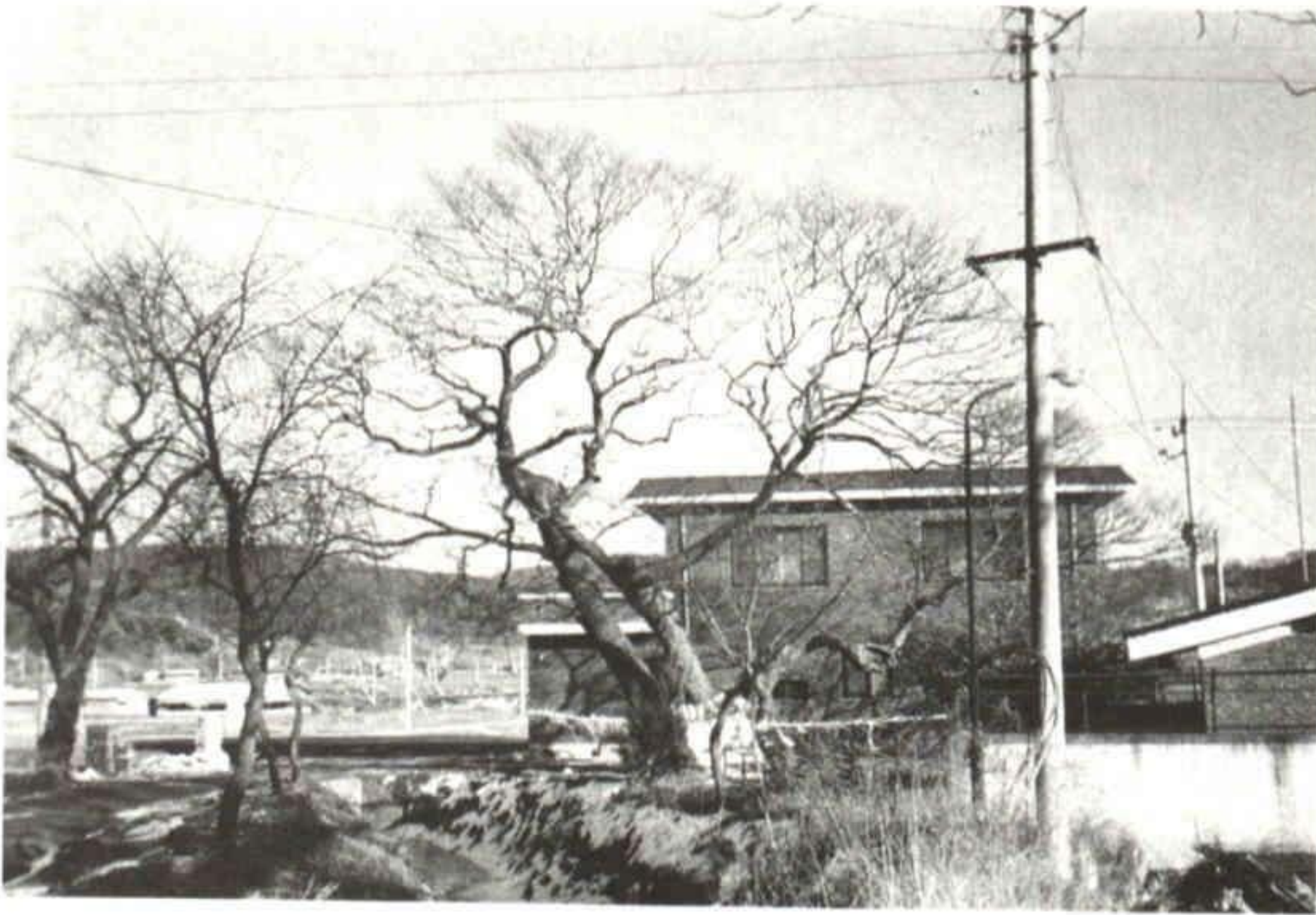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유영수씨는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노신제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다. 지금도 노신제를 주관하며 지내고 있다.

1. 명칭 : 노신제 또는 거리제
2. 성격 : 목신 (느티나무 신)
3. 느티나무의 위치 :

장곡면 산성리 1구 원골 마을은 백제 부흥운동의 본거지였던 주류성이 있는 학성산 아래에 있다. 마을 바로 앞으로는 무한천이 흐르고 있으며, 광천과 청양, 홍성쪽으로 통하는 지방도가 마을 앞에서 4거리로 갈라지고 있다. 마을 안쪽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조용식씨 가옥이 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신제를 지내는 느티나무는 마을 앞을 통과하는 지방도 바로 안쪽에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인 조용식 가옥으로 들어가는 소로길에 마을 회관이 있다. 이 마을 회관 마당에 노신제를 지내는 느티나무가 서 있다.



노신제를 지내는 느티나무 전경

4. 느티나무의 형태 :

노신제를 지내는 느티나무는 충청남도 나무로 지정되어 있다. 수령은 대략 5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밑동에서부터 원가지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늘 높이 뻗어 올라 있다. 느티나무 양쪽 가지 밑동은 고목인 관계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한쪽 가지 밑동은 2년 전에 아이들이 불을 놓아서 화재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면 언제 부러질 지 모를 정도로 가지 밑동이 약해졌다. 또 다른 한쪽 가지는 3년 전 여름에 심한 태풍으로 위쪽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갔다.

5. 제의 목적 :

마을 전체가 항상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신제를 지낸다. 마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항상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신제를 지낸다. 특히 이곳은 마을 앞으로 많은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 마을 앞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6. 제일 :

제사 지내는 날은 항상 마을 유허제를 지내는

날과 같다. 저녁 일곱시 경에 유허제를 먼저 지내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 느티나무 앞에서 노신제를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

마을에서 뽑힌 제관이 주관한다. 정월 초하룻날 생기복덕을 보아서 부정이 없고, 일진이 맞는 사람으로 다섯 명을 뽑는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을 갖춰서 다섯 명씩 뽑을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으로 뽑는다. 주로 양띠나 토끼띠 등으로 순한 띠를 뽑는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유허제와 노신제를 주관한다.

8. 금기 :

옛날에는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했다. 산으로 나무도 다니지 못했다. 잘못하면 나뭇가지에 다쳐서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몸에 이가 아무리 많아도 잡지 않았다. 이를 잡는 것도 살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로 생각해서였다.

마을 전체가 집집마다 황토 흙과 금줄을 쳐놓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 것은 물론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금기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

제물은 삼색 실과, 포, 밥, 탕국, 술, 김 등이다. 제사는 유허제를 지낸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린다.



제물

지금은 노신제를 신앙심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노인들 몇 명이 대부분이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떡과 제물을 차려서 느티나무 앞으로 간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주가 소지를 한장 올린 다음에 대동소지를 한 장 올린다. 소지를 올린 다음에는 음복을 하고 다시 제주 집으로 돌아와서 차린 음식을 나눠 먹는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

옛날에 용왕제와 노신제를 성대하게 지낼 때에는 마을 전답에서 나오는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 그러다가 마을 전답이 없어진 다음에는 집집마다 쌀을 한 되씩 걷었다. 지금은 마을 동산을 매각하여 저축한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다.

용왕제와 노신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이십만원 정도이다. 특별한 결산 절차는 없고, 마을

회의 때에 간단히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11.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

옛날부터 원골 마을은 큰 재앙을 겪지 않고 순탄하게 지내왔다. 6·25 같은 큰 전쟁 때에도 군대에 가서 죽은 사람이 없다. 마을 전체가 용왕제나 노신제를 정성껏 모신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거르지 않고 매년 지낸다. 제사를 지내서 손해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노신제를 신앙심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노인들 몇 명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물려주려고 노력해도 이어받을 젊은이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노신제를 지내는 모습

12. 유래 및 전설 :

노신제가 어떤 이유로 지내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마을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또한 노신제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것 역시 느티나무의 수령을 500여 년으로 추정해볼 때, 적어도 몇 백년은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신제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일화가 여러 개 있다. 대략 4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마을에 마마를 앓는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냥 노신제를 지낸 일이었었다. 부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노신제를 연기했어야 했는데도, 그냥 지내었다. 그때에 마을에 마마가 번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부정한 것을 보고도 그냥 노신제를 지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산 부정은 3일, 죽은 부정은 7일을 연기하여 지내고 있다.

해방이 되고 문맹퇴치 운동을 벌일 때였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다. 그때 선생님은 칠판을 느티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공부를 가리켰다. 그 일로 선생님이 심하게 앓아 누운 일이 있었다.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서 전도사 한 분이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그 전도사는 느티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을 가져다가 때었다. 마을 사

람들은 아무리 나무가 귀해도 느티나무 가지는 건드리지 않던 시절이었다. 전도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느티나무 가지를 주어다 때었다. 그 후로 그 전도사도 심하게 앓아 누운 일이 있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마을회관을 느티나무가 있는 길옆에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마을 회관을 짓기로 한 곳이 접도 구역이어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다. 마을 회관을 지으려면 느티나무 가지를 한쪽 잘라 내고 길 안쪽으로 깊숙이 들여 짓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느티나무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뽕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름에 심한 비바람이 불면서 느티나무 가지 한쪽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다. 공교롭게도 마을회관을 짓기로 한 방향에 있는 가지가 부러진 것이었다. 그 바람에 아무 걱정 없이 가지가 부러진 쪽으로 마을 회관을 지을 수가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느티나무가 영험해서, 마을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祝文

丁蓄 正月 初三日

유세차 병자 1월 병축삭

초 삼일 무자 유학 이기운

감소고우

노신보향 상하태평

노소안저 만리여역

인다사망 길흥시현

산해지택 산유초초

미성서기 흠향



노신제를 끝내고 음식을 나눠먹는 주민들

홍성의 명산

용봉산(龍鳳山)



정 태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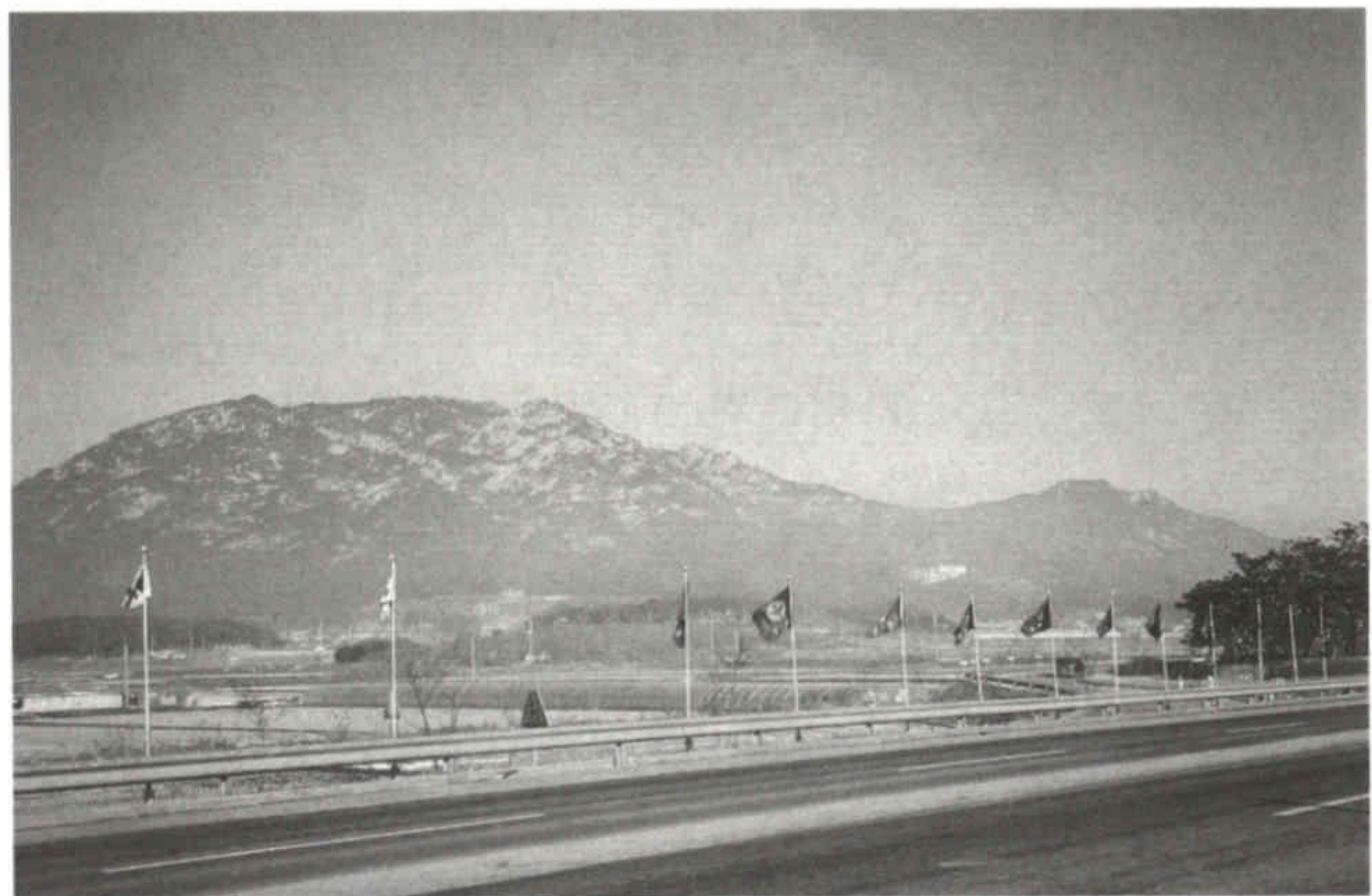
홍성강남공인중개사

▶ 아기자기한 명산 길 ◀

홍성에는 진귀하면서도 보배스러운 명산이 있다.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하고 수석처럼 놓여있어, 꼭 품속에 품고 가져가고만 싶은 산이다. 높이는 381m로 산 모양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머리는 봉황처럼 생겼고, 그 용은 마치 덕산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홍성읍을 향하여 꿈틀거리며 날아오고 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구에는 수많은 산이 즐비하게 있으나 이처럼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고 있는 산은 드물다.

이 산은 서울에서 장항행 열차를 타거나 21호 국도를 타고 홍성읍에 도착할 무렵이면, 오른쪽 차창 밖으로 약 2km 전방에 수목을 보이지 않는다. 오직 기암괴석들이 만발하여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12km 가량 一자형으로 홍성에서 덕산까지 기묘하고 장엄하게 뻗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용봉산은 그 높이 때문에 명산인 것이 아니다. 단조로우면서도 복잡한 것 같고, 또 복잡하면서도 단조로운 것 같은 기술적인 묘한 형상이라



기암괴석이 용의 형상을 한 용봉산

서 재미있는 산행을 할 수 있어 명산이다. 약 4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코스로 주변에 있는 월산(月山), 홍주아문(洪州衙門), 홍주읍성(洪州邑城)과 조양문(朝陽門)을 보고 산행 후에는 덕산온천에서 온천욕까지 하고, 윤봉길의사 사적지와 덕숭산의 수덕사(修德寺)까지 순례할 수 있어 좋다.

홍성읍에서 수시로 운행되고 있는 봉신리 경유 수덕사행이나 덕산온천까지 가는 홍주여객 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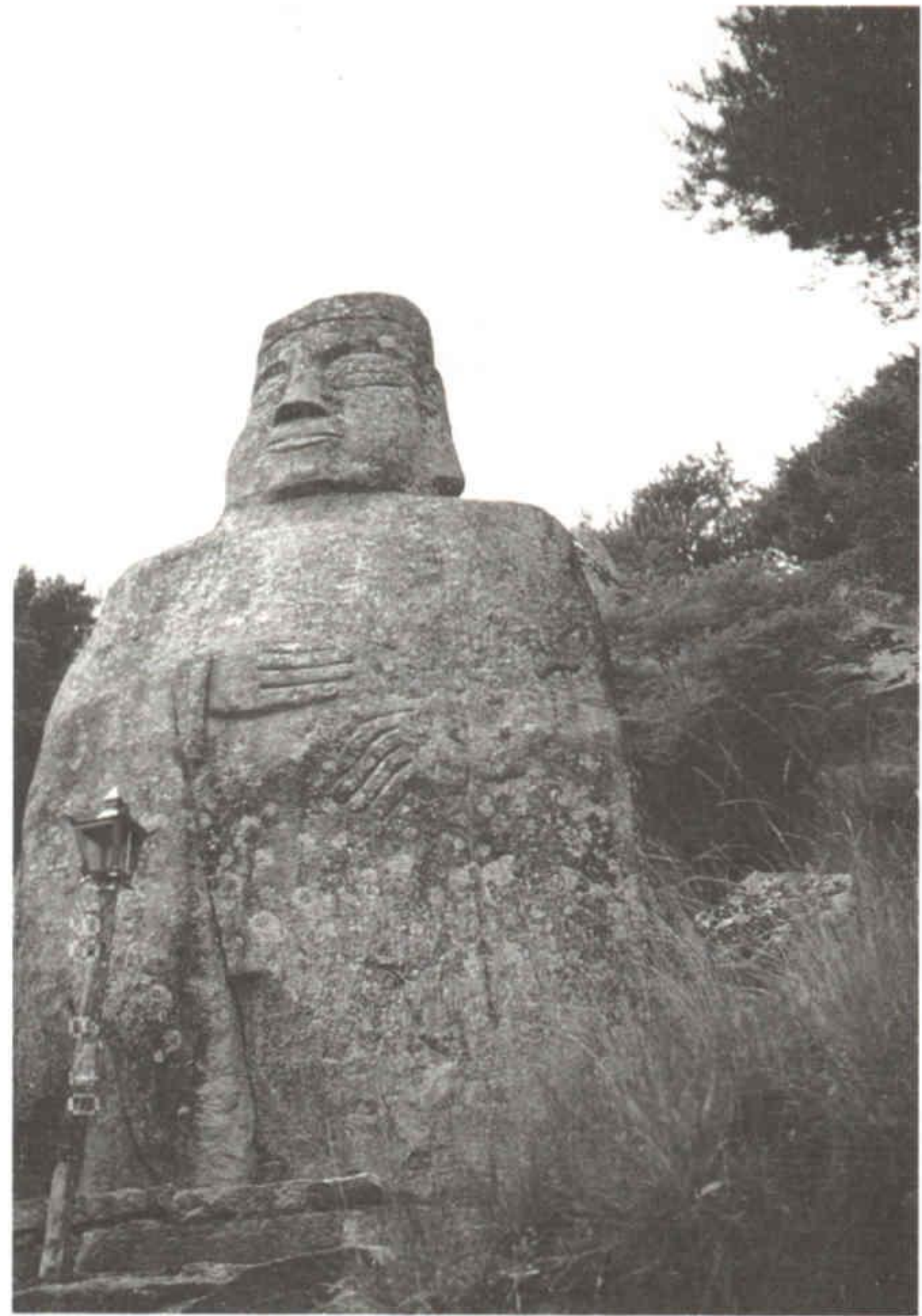
타면 산행코스에 따라 15분 가량 걸려 용봉초등학교나 용봉사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시간이 여의치 못해 택시를 타게 되면 10분이면 이곳 등산기점에 도착하게 된다.

▶ 산 속의 유물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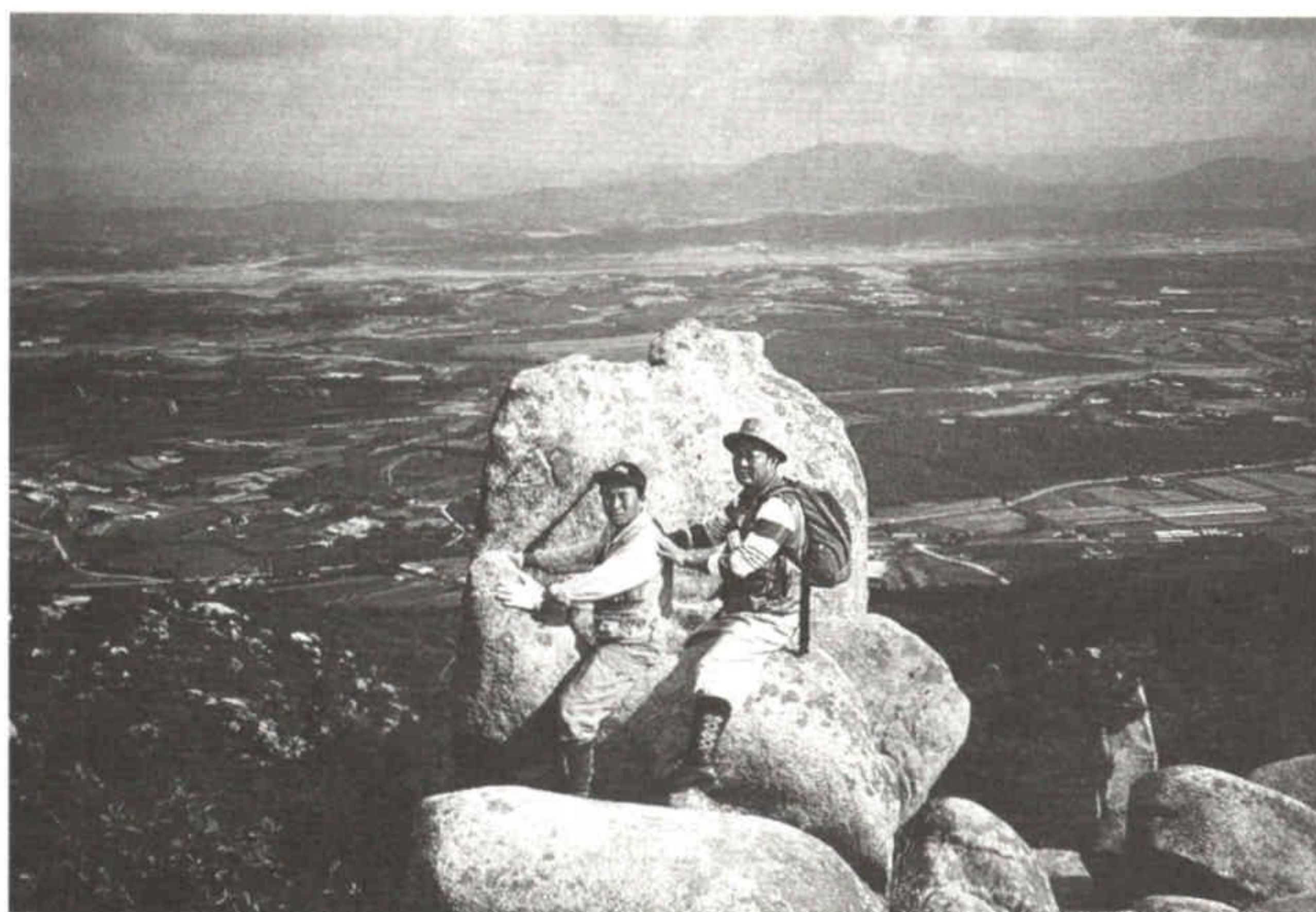
용봉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나있는 산길을 8분 가량 오르려니, 커다란 미륵불(彌勒佛)이 나타났다. 이 미륵불은 고려 때 작품으로 매우 거대하며, 지방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상 옆에는 작은 미륵암자가 있는데, 마침 어느 불자님이 나왔다. 그분은 나에게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이 미륵불에 기도를 드리면 아기를 점지해 준답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곳에서 식수를 준비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무 숲길을 올랐다. 길은 오솔길로 한적하였다. 숨소리를 고르며 가파른 비탈길을 다시 30분쯤 더 오르니 381봉 정상이었다. 정상은 암석으로 되어있었다. 그 암석 위에는 어느 산악인들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정상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홍성지역의 넓은 구릉지가 한 폭의 그림 같다.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서 추천된 곳이라 하니, 더욱 넓어 보였다. 저 넓은 대지에 충남의 행정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아파트 숲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장관이리라 생각되었다.



용봉산 미륵불



말바위에 앉아서

정상에서 암릉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여러 모양의 암석들이 이채로운 모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말(馬) 모양의 바위도 있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바위를 올라타고 말궁뎅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 타는 시늉도 하여본다.

지칠 줄 모르는 산행은 계속되었다. 다음에 나타나는 산이 해발 369m의 암봉이다. 너른 암반 위에서 시산제를 지내거나 점심을 먹고 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

다. 이 암반을 북쪽으로 돌아 내려가노라니 진귀한 암석들이 또 나타났다. 어느 하나 놓칠까 무서워 감상을 하며 고개마루 넘어 용봉사로 내려가는 왼쪽길목 계단 위에 도착하니, 범이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암석이 나타난다. 그 암석 앞면에는 입불(立佛)이 양각되어 있었다. 사적 제355호로 지정된 마애불(磨崖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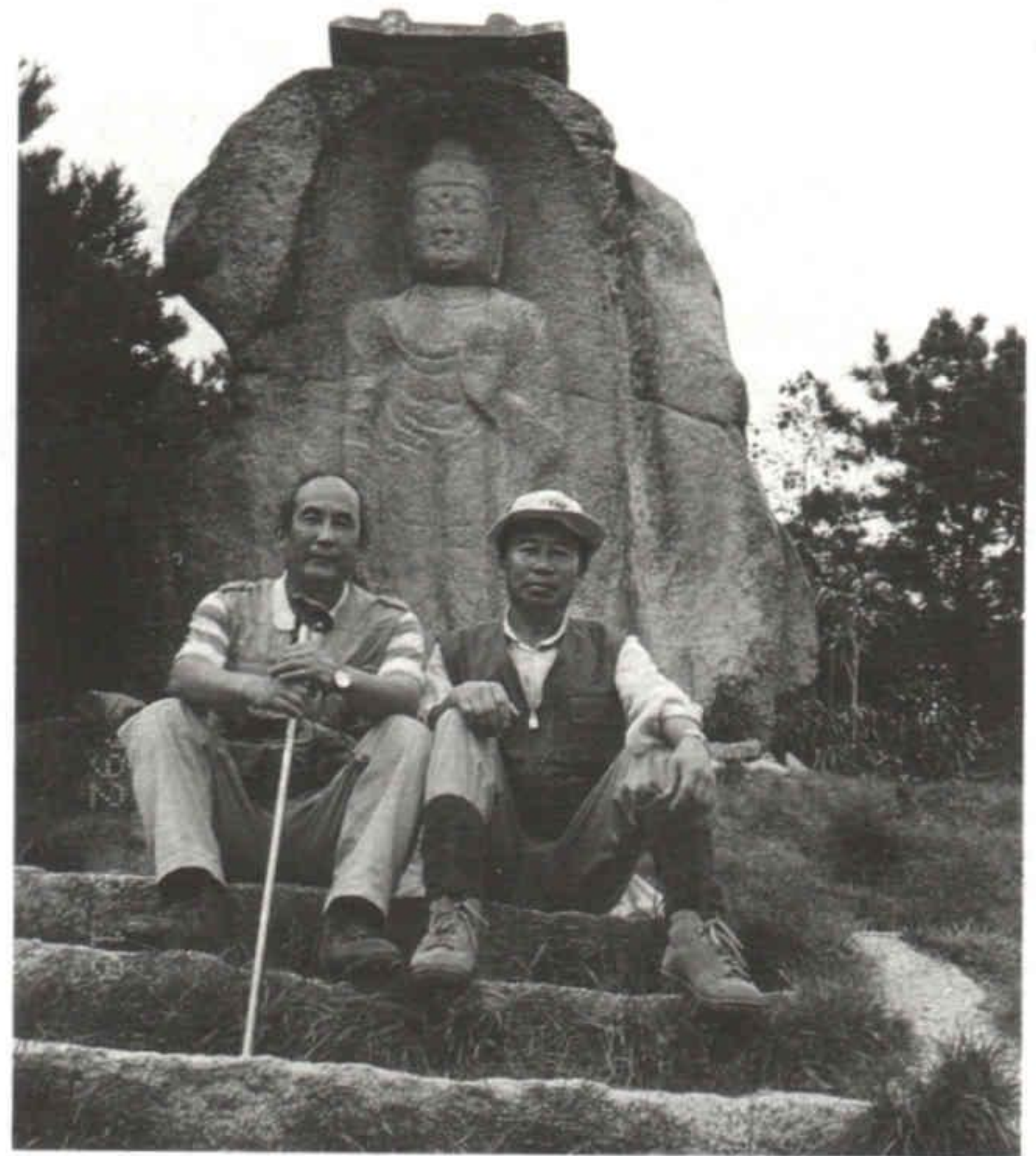
이 석불 밑으로는 커다란 묘가 있다. 이 묘는 조선조 중엽에 당시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명당이란 소리를 듣고 절을 철거시키고, 그 자리에 병조참판을 지낸 자신의 묘를 썼다고 한다.

▶ 절의 유물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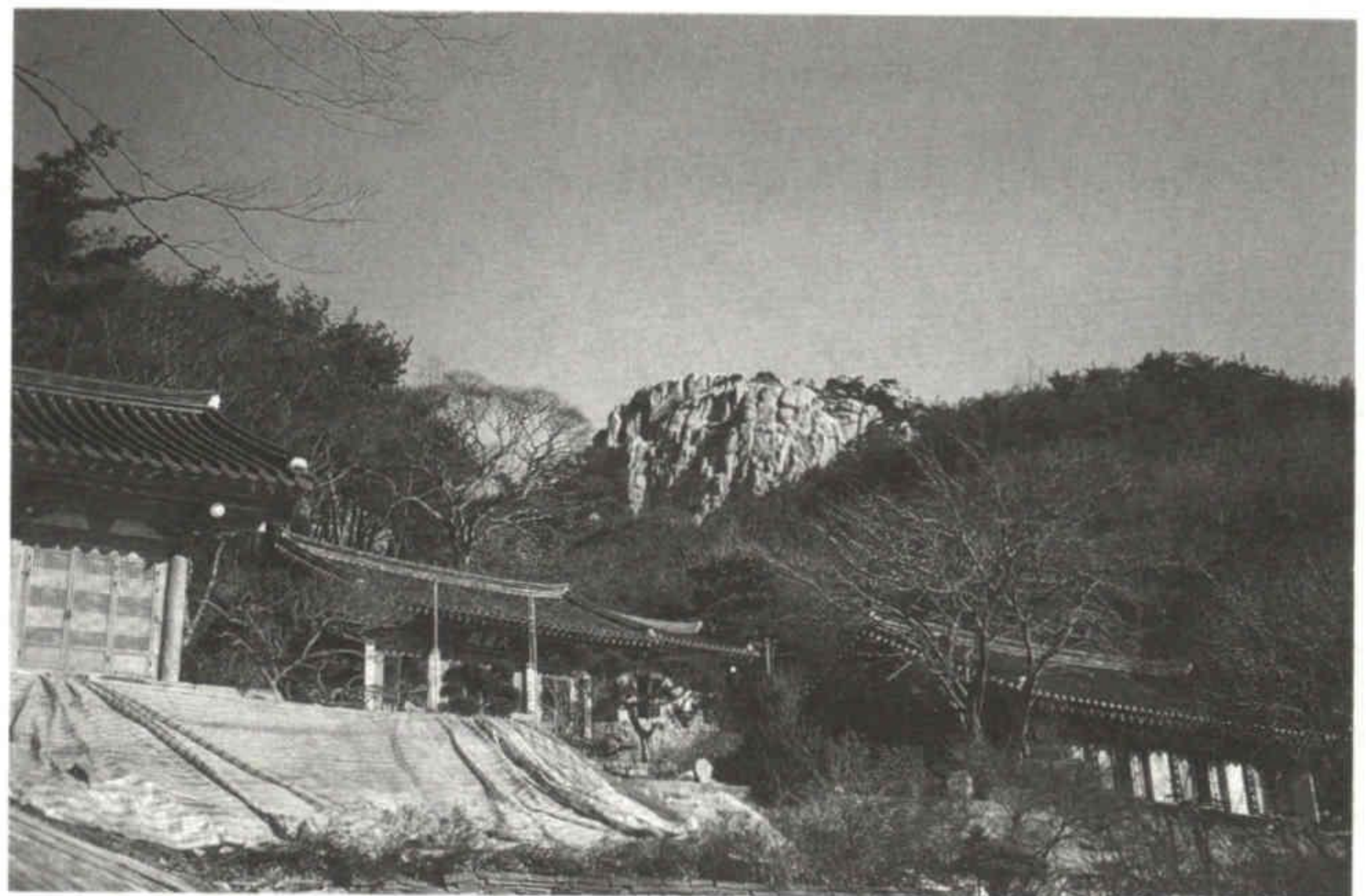
용봉사 옛 절터 자리에는 지금도 길이 2.89m, 넓이가 0.40m의 석조(石槽)가 있다. 이 석조와 같은 장소에는 구경(口經)이 0.77m, 깊이가 0.22m, 외원경(外圓經)이 1.28m 되는 석구(石臼)가 있는데, 이것들은 조선시대의 유물로 추측된다. 이것들은 절터 옆으로 버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절 밑으로 옮겨졌다. 용봉사가 현재의 위치로 옮기기 전에 쓰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석구가 있는 그 자리에는 유구(流口)에서 회전부(回轉部) 끝까지가 1.70m, 외원경이 1.28m되는 거대한 맷돌도 있었다.

현재의 용봉사는 이조 병조참판 묘의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여 크기는 2동 26평이었는데 지금은 2동이 더 건립되어 있고, 예전의 2동은 광무 10년(1906)에 창건된 것이다. 이 절 입구 석벽에는 마애불(磨崖佛)이 새겨져 있는데, 통일신라 때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등산을 시작한 지 2시간 30분이 걸렸다. 등산을 끝내기 위해 잘 다듬어진 산길로 내려오면 609 지방도로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홍성방면이나 덕산온천 방면으로 가는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다.



마애석불에서



용봉사 전경

▶ 용봉산의 전설 ◀

용봉사에서 다시 능선에 오르면 오른쪽으로 온갖 만물상을 그려낸 병풍바위를 바라보며 용바위를 거쳐 수암산에 오르게 된다. 수암산 역시 석상들이 여러 모양을 만들고 있어 장관이다. 이곳에서 산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1978년도 홍성 지진 때 산이 갈라져 생긴 산파열상을 볼 수 있다.

옛날에 백월산의 장사와 용봉산의 장사가 돌팔매질을 했는데,
백월산의 장사가 더욱 힘이 강해서 백월산에는 돌이 적고
용봉산에는 돌이 많이 쌓였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다

산밑에는 덕산온천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곳까지는 총 4시간 20분에 산을 완주할 수 있는 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용봉산이 팔봉산(八峯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상들이 크게 보이는 여덟 개의 봉우리만 보고 이름을 팔봉산이라 했다는 것이다. 또 옛날에 백월산의 장사와 용봉산의 장사가 서로 돌팔매질을 했는데, 백월산의 장사가 더욱 힘이 강해서 백월산에는 돌이 적고 용봉산에는 돌이 많이 쌓였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다.

▶ 목욕을 하고 나면 ◀

용봉산은 등산코스가 단순하여 부녀자와 초보자도 쉽게 등산할 수 있다. 또한 진귀한 바위들과 신화적 전설이 있는 곳이라 누구나 한번쯤은 기호가 당긴다.

더욱 즐거운 것은 등산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젖은 육신을 덕산온천의 유황수에 폭 담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뜻한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수에 몸을 담그니, 수억 광년 성운시대로부터 흘러온 영겁의 세월이 용봉산의 장엄한 영상과 더불어 뇌리에 스며들고 있었다. 용봉산을 정복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잠재해있던 모든 잡념과 부정스러웠던 마음이 송송히 맺히는 땀방울에 묻어나고 있었다.

용봉산의 등산은 이러한 묘미가 있어 좋다. 낭만적인 쾌감과 현실적인 즐거움이 서로 교차하는 곳, 용봉산은 오늘도 화창한 봄날 속에 개혁하는 새정부 탄생을 축복이나 하는 듯이 묵묵히 근엄하고 인자스럽게 우뚝 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많은 등산객들을 영접하고 있다. 모든 세상사람들을 다 모시겠다는 듯이...☆

홍성교육의 등불, 이수영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



권기복 홍주중학교 교사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고자

3월의 아침 햇살은 여느 해보다 포근하였다. 지난해의 오늘(3월 12일)은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올해에는 개나리 꽃망울이 부풀어오르면서, 그 끝 부분이 노란빛을 토해낼 정도였다. 마침 필자의 근무지가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예전부터 찾아뵙고 싶었던 이수영 교장 선생님의 근무처인 홍남초등학교로 향하였다.

전날 미리 전화 약속을 하였기에 다른 연락 없이 찾아갔다. 교무실에 들어서 웃음 끝이 푸짐하신 교감 선생님의 안내로 교장 선생님을 뵈게 되었다. 만날 약속만 하고, 별 영문을 모르던 교장 선생님께서는 방문한 내용을 듣고는 한동안 인터뷰를 마다하였다. 교육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당신을 취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자유롭게 찾아다니는 ‘글자리’ 임을 강조하여 어렵사리 승낙을 얻어냈다.



학생 소풍 때 안전을 당부하는 모습

- 교장 선생님!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언제 봐어도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가 박혀서인지, 항상 젊어 보이십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지요?
- = 무슨 말씀요. 먹는 나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권 선생님도 잘 지내셨는지요?
- 예. 교장 선생님! 교직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 지난 1962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 고향은 어디 신가요?
 - = 이곳 홍성이 고향이지요. 광천읍 신진리가 원 고향입니다. 광천에서 덕명초등학교, 광천중학교를 졸업했지요. 그리고 공주사범학교 9회(10회가 마지막이고, 공주교육대학으로 바뀜) 졸업했어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2년 간 근무한 것을 빼고는 홍성 지역의 각 학교를 두루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직 생활을 하였지요.
 - 평교사 시절에 인상 깊었던 일을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겠어요?
 - = 한 번은 9월에 전근을 하여 갔는데,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에게 제 이름 석자를 익히게 하는데 3달이 걸렸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가끔 눈에 밝혀요.
- 5학년 담임을 할 때였어요. 장님인 홀아비를 모시며 살던 여자아이가 있었지요. 소녀가장 노릇을 하느라고 지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 형편을 알고 나서 지각에 대한 벌을 면제하여 주고, 조금 신경을 써 주었지요. 결국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지만, 잘 커서 남편과 함께 찾아왔더군요. 그 때에 고마웠으면서 절을 받을 때, 코끝이 찡하었어요.
- 4학년을 지도할 때가 생각나는군요. 행동이 거칠던 아이가 있었는데, 음악 시간에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크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웅변 원고를 직접 써서 외워보게 시켰어요. 아무런 숙제도 안 하려고 들었던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원고를 다 외워 왔어요.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데 신이 난 거죠. 방학 때에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웅변 학원을 하던 친구에게 맡겨서 지도를 받게 하고, 그 후로 대회마다

상을 받았지요. 지금은 서울에서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후로 웅변 지도교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교육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게 감싸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하였지요.

교장 선생님의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씀을 듣다보니, 필자의 양심이 저울대에 올려졌다. 제발 부끄러운 면이 저울대에서 기울어지지 않기를 빌면서, 교장 선생님의 제자 사랑에 대하여 머리가 숙여졌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제자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스승이 아주 많다.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이룰 때, 교육계는 사랑의 꽃을 만발하게 될 것이다.



홍남초등학교가 자랑하는 사물놀이부 연주 모습

사랑의 전도사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에 가보면, 반드시 돌이 물길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내에 돌이 있으면 물의 흐름을 방해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돌은 물의 흐름을 도와주며 맑은 물빛을 간직하게 하여준다. 이수영 교장 선생님!

바로 이 분이 맑은 물이 흐르도록 도와주는 학교의 조약돌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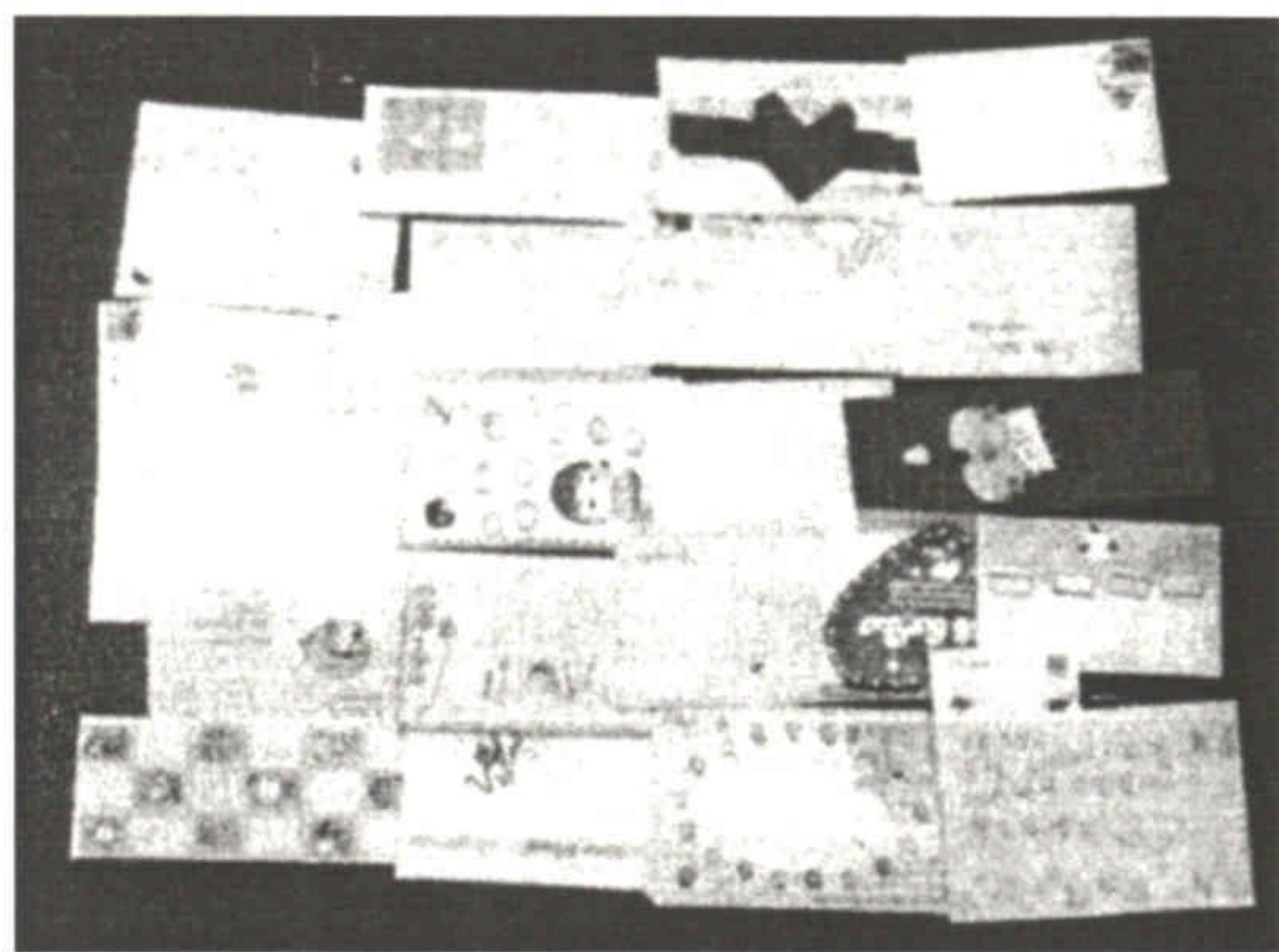
- 교감 선생님께서 승진하신 때는 언제인가요?
- = 1992년 9월 1일자로 구항초등학교 교감으로 나갔지요. 그곳에서 겨우 1년 반만에 충청남도홍성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줄임) 장학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교육청에 머물게 되었지요.

필자가 교장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도 교육청에 계실 때였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글짓기 대회 작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처음 뵈던 자리에서도 여느 사람보다 조심스러운 말씨와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 자리를 찾아서 겸양을 보이는 분이 아니라, 겸양의 미덕이 몸에 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교장 선생님께서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 = 지난 1999년 9월 1일자로 구항초등학교 교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교감 첫 발령지도 그곳이었는데, 교장 첫 발령지가 되었지요. 아마 그 학교에서 교감으로 다 하지 못한 일을 마저 하라고 발령을 냈나봐요.
- 교장 선생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분으로 교육계에 널리 알려지셨는데,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 평교사 시절에 아이들이 방학 중에 편지를 보내면 일일이 답장을 쓰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다가도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밀리게 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가 구항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나

가게 되면서, 새 천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게 되었지요. 새 천년을 함께 맞이하는 큰 의미에서 전 교사와 전교생에게 사랑의 편지를 나눌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홍남초등학교로 전근을 와서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고 있지만, 18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그래서 본교 아이들 중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긴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전교생에게 골고루 편지를 나눌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많은 아이들이 편지를 받고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흐뭇해짐을 느껴요. 우리 학교에서는 1년에 6차례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는데, 찾아오신 학부모님들이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보낸 답장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

나도 방학 때에는 학생들의 편지를 받는다. 항상 답장을 해준다고 하다가도 차일피일 하다 보면 그냥 넘기기가 일쑤였다.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다음에는 꼭 답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남 보기에는 몇 줄 써서 보내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할

교육이란,

아이들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분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 모른다. 그러나 편지를 써 본 사람은 알 것이다. 한 아이, 한 아이에게 걸맞은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학생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한 줄을 쓰기도 막막해 진다.

- 큰 학교를 관리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 큰 학교인 만큼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바람이 쏟아지지요. 언제나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쪽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어느 한 쪽이 서운해 할까봐 조심스러워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매치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요. 모든 아이들을 보면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불러서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러워요.

필자는 보통 1년에 4개 학급의 학생들을 만난

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 매치도 쉽지 않은데, 1800여 명의 아이들을 챙기시려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평소에 꼼꼼하신 성격으로 알려진 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꼼꼼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교육은 꼼꼼한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것을 교장 선생님을 뵈면서 실감했다.

- 교장 선생님의 교육관을 듣고 싶습니다.

= 글썄요. 교육이란 아이들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분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는 앞에서 잡아끌면 잘 가지 않지요. 뒤에서 앞서가도록 하여야 잘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스스로

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고, 뒤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 홍남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만 잘 따른다면 모두 우등생이 되겠어요.
- = 저는 우등생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졸업식 때에 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였지요. 반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던 성적입니다. 4학년 때에 반에서 20등 안에 든 성적을 말하자 아이들도 박수를 치더군요. 만일 그 당시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공부 안 한다고 혼냈으면, 나중에도 공부를 못했을지 몰라요. 다행히 기대와 인내심으로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죠.



충남교육 종합보고회 초등부 최우수교 수상 모습

어떤 사람이 삶과 죽음의 차이점을 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삶은 신명이 붙은 것이고, 죽음은 신명이 떨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어느 면으로든 신명이 붙으면, 이루어내지 못할 바가 없다.

- 교육계에 남은 기간과 바람이 있다면요.
- = 이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였으면 합니다. 또, 독서를 즐겨하였으면 싶어요.
- 교장 선생님께서 매 방학 후에 교내 독서경

시대회를 개최하시고 계시죠? 시험문제도 직접 출제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 = 맨 처음에만 출제했어요. 학년 별로 10권씩의 필독도서를 지정해주고, 권당 3문제씩 출제하지요. 문제 당 3점씩 해서 90점에 10점은 읽은 책 수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60권의 책을 읽고, 180문제를 직접 냈지요. 다음부터는 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연인원 900명 정도가 독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 교장 선생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 1남 2녀를 두었어요. 큰딸은 가정주부이고, 둘째 딸은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꽤 찼는데 (31세), 나 닮아서 주변머리가 없는지 장가를 못 가요. 지금 청양 군청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도 좋은 혼처가 있으면, 주선해 주세요.
-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웃음) 사모님은요?
- = 대교리가 집인데, 함께 살죠. 장가 못 간 아들과 함께요.
- 두 분 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 = 감사합니다.

잠시 다른 대화 몇 마디를 나누다가 교장실을 빠져 나왔다. 얼굴에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바람을 쐬히고 교문을 나섰다.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을 즐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교장 선생님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학교, 나도 마음 가득 사랑을 보듬어 안고 도둑님(?)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홍주목사 한승형(韓承亨)



배동순 향토사학자

【아래의 내용은 중종실록 제22편에서 홍주목사 한승형에 관한 글을 채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6일(계미)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간이 아뢰기를,

“승정원은 곧 왕의 후설(喉舌)로서 그 임무가 중대합니다. 전에 적합하지 못한 자가 있어 여러 번 탄핵하여 체임하였는데, 지금 이조가 자세히 살피지 않고 안팽수(安彭壽)를 의망(擬望)하였습니다. 팽수는 본래 순정(純正)한 사람이 아니니 승지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즉시 체임하소서. 상의원정(尙衣院正) 한승형은 처음에 잡종자급(雜種資級)을 많이 모아서 자궁(資窮)이 되었는데, 과거에 급제하자 바로 3품에 서임하는 것은 조금씩 승진하는 외람된 폐단이 있습니다. 승형이 아니더라도 어찌 선진(先進)으로서 상의원 정을 삼을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대간이 아뢰기를,

“한승형은 체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않아서 모든 조진(躁進)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체임한다면 사습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이조·예조·대제학 등이 같이 의논하여 문신 김안로(金安老)·김정(金淨)·소세양(蘇世讓)·유옥(柳沃)·유돈(柳敦)·정사룡(鄭士龍)·신광한(申光漢)·표빙(表憑)·박세희(朴世熹)·김구(金絀)·윤계(尹溪)·황효헌(黃孝獻)·정웅(鄭鷹)·손수(孫洙)·유성춘(柳成春)·기준(寄遵) 등에게 사가독서(賜暇讀書) 할 것을 초계(抄啓)하였다.

17일(계묘) 대간이 한승형·노종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홍문록(弘文錄)은 중요한 천거입니다. 그 중에 김선(金璇)·최산두(崔山斗)·박전(朴詮)·

“간원에 물을 수 없습니다.

관직을 중하게 여기려는 것 뿐이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한필(曹漢弼)은 모두 이 천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무리가 천거에 참여하면, 거기에 천거된 자들이 반드시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속히 삭제해야 합니다.”

간원이 한승형·노종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가 차자를 올려 노종·한승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한승형은 부정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승진시켜 정(正)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된 자의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은 교화(敎化)에 매우 큰 것이니, 만약 한 사람을 징계하여 폐습을 고칠 수 있다면 그를 체임(遞任)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우선 그의 벼슬을 해임하여 뒷날의 교화를 보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새로 급제하여 계궁(階窮)된 자에게 준직(準職)을 주는 것이 비록 법전에 기록되어 있으나, 정(正)은 1사(司)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되

는 것이니, 직위는 부정(副正)에 이르렀지만 장관(長官)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섬시정(內贍寺正) 한승형이 비록 충의위로 계궁되었다 하지만, 곧 어젯날의 유생이니 어찌 장관직에 합당하겠습니까? 청하옵건대 개정하소서.”

하고, 헌부에서도 이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한효원과 김우서는 체직하라.”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삼공(三公)에게 전교하기를,
“한승형의 일은, 「대전(大典)」에 동서반(東西班)을 분간한다는 말이 없는데 간원에서는 매양 법 밖의 일로 말하고, 이성동(李成童)의 일은 또한 「대전」에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으니, 그를 묻고자 하노라.”

하매, 회계하기를,

“간원에 물을 수 없습니다. 관직을 중하게 여기려는 것 뿐이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저 경연(經筵)이란 강(講)뿐만 아니라 현사(賢士)를 접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강(晝講) 역시 조강의 예와 같습니다. 대간과 대신들도 들어와 참석토록 하소서.”

하였다. 간원은 또 남치원·윤탕로·유홍·한승형·이세웅 등의 일을 아뢰었다.

제왕이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말 달려 사냥이나 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이는 화를 부르고 망함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계복의 일을 동료들이 비웃는다 하니, 이
무슨 일인가?”
하매, 회계하기를,
“성종 때 권찬(權瓚)은 의술로써 공조 판서가
되었는데, 탕로는 외척으로서 쓰이지 않겠는
가? 유흥과 이세응은 체직하고, 한승형·남치
원·이계복은 윤허하지 않는다.

24일(계해)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領事) 유순
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제왕(帝王)의 역년이 길고 짧은 것은 임금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제왕이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아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말 달려 사냥이나 하는 것에 마음을 둔
다면 이는 화를 부르고 망함을 재촉하는 길입
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무일(無逸)을 읽고 여
기에 마음을 두시어 장구한 치안의 도를 염두
에 두심이 옳은 줄 압니다.”

하고, 지평 허굉(許礪)·정언 김안로가, 윤탕
로·남치원·한승형의 일을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대신이 병이 있으면 의원을 보
내고 약을 내리며 또 휴가를 주어, 비록 한두
달이 되더라도 곧 개정하지 않았습디다. 이제
유빈이 병이 있다하여 곧 개정하시니, 대신을

대우함이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안윤덕은
전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조는 조정의 근
본이니, 전조가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조정은 해체됩니다. 속히 개정하시기를 청합
니다.”

25일(갑자) 조참(朝參)을 받았다.

조강에 납시었다. 장령 이사공(李思恭)이 이유
청·한승형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맥(李陌)은 공론에도 불합하거니와, 전조
(銓曹)에서도 승지 망(望)에 넣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가서(加書)하라고 명하시어 승지를
삼으셨습니다.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를 쓰
심이 이와 같으시지만 그 인물이 후설(喉舌)
의 책임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하고, 정언 김굉은 한승형의 일을 아뢰고, 또 말
하기를,

“안윤덕은 후궁의 가까운 친척인데, 판서의 망
에 가정(嘉靖)인 참판(參判)을 의망하라고 명
하시어 드디어 낙점(落點)하셨으며, 이 맥에
대해서는 추서(追書)를 명하시어 승지를 삼으
시니, 이 두 사람이 비록 물망이 있더라도 전
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심이 부당하거늘, 하물
며 공론에도 불합함에리까? 이는 다만 성덕
(聖德)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등용하
는 도에도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전통 한옥



김경식

홍북면 노은리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통가옥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가옥으로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아름다우며 과학적으로 발전해 왔다.

한옥의 특징은 남쪽지방의 방식과 북쪽지방의 방식이 합쳐지고, 북쪽의 온돌과 남쪽의 마루가 합쳐져 온돌방과 마루가 함께 한 지붕 밑에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들의 생활에 알맞은 과학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한옥은 외풍이 세고 춥다고

하지만, 사실 전통한옥은 원래대로 지은 집이라면 그렇지 않고 전통한옥의 흥내만 낸 집은 분명히 겨울에는 외풍이 세고 여름에는 덥기 마련이다.

전통한옥을 지을 때는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 집을 지을 알맞은 자리를 찾아 그 터에 맞는 크기의 집을 지어 왔다. 큰 터에는 큰집을 짓고, 작은 터에는 작은 집을 지어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친환경적인 가옥문화를 이루어 왔다. 건축기술이 부족해서 크게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터에 맞고, 분수에 맞는 집을 지어 그 안에서 대대로 자손이 번창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면서도 과학적이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집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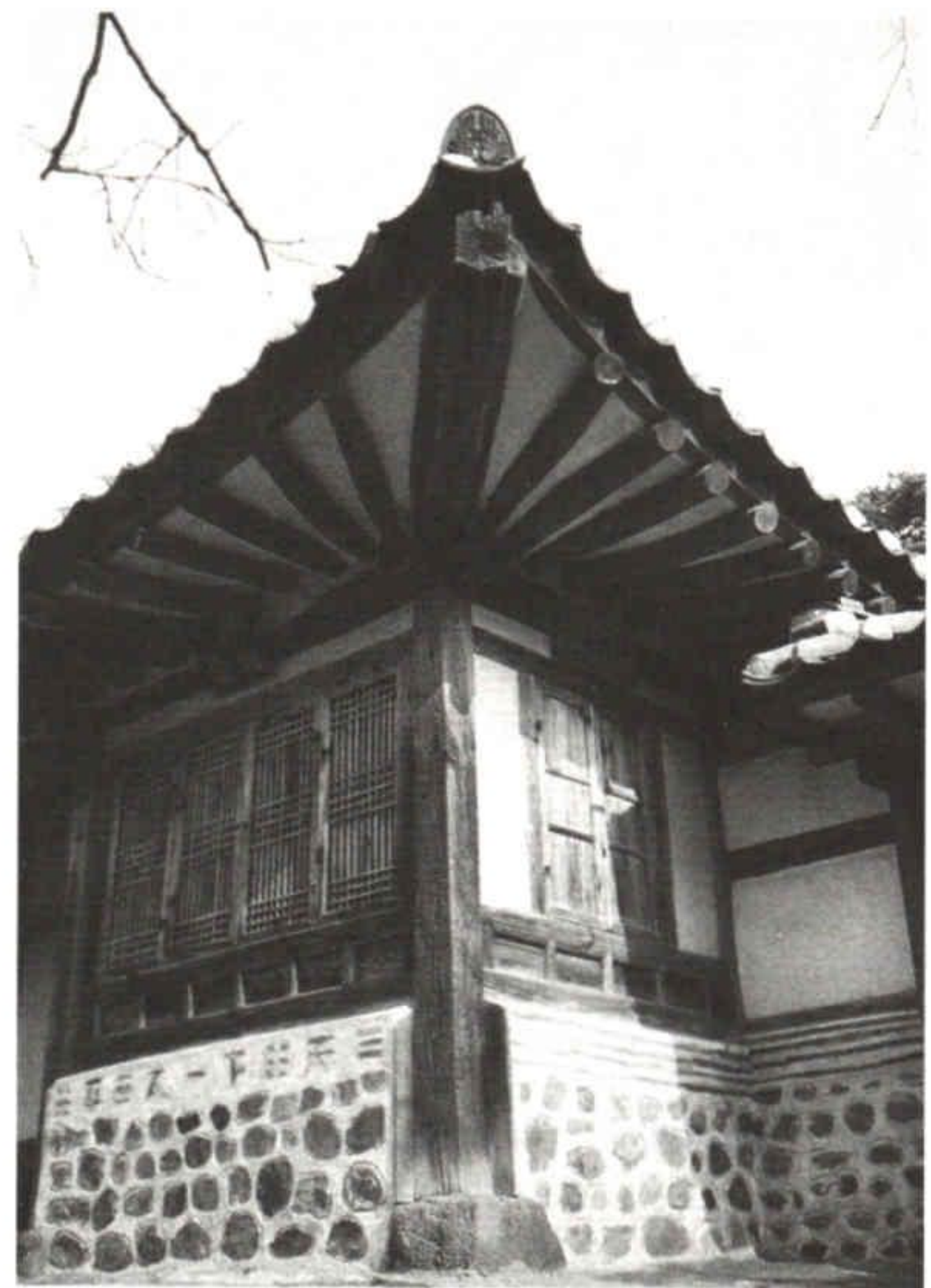
‘3대가 덕을 쌓아야 남향집 한 채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남향집은 우리들에게 소중하며 과학적이고, 위생적이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되어 건강하게 살고, 겨울에 따뜻해서 난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남향집이다.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당연히 남향집을 지어야 하고, 지구의 남반구에서는 북향집을 지어야 좋을 것이다. 그만큼 햇빛이 잘 들어야 좋은 집이다. 영국속담 중 ‘햇빛이 잘 드는 집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우리의 남향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반증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좋은 터, 좋은 방향에 나무와 돌과 흙 등으로 집을 짓는다. 자연에서 쉽게 구하고 자연과 친숙하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재료다.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집 속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 길잡이

자연과 함께 대대로 살아 온 것이다. 특별히 원적외선을 쬌어야 할 필요도 없이, 생활 속에서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왔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는 한옥은 세계의 빼어난 건축물이다. 중국의 가옥은 웅장하고 규모가 방대하나 균형과 조화가 우리 한옥을 따라오지 못하고, 일본의 가옥은 날카롭고 절도가 있으나 포근함과 자연과의 친화력이 부족하다. 우리의 한옥은 이러한 점에서 빼어난 건축물이다. 이러한 한옥이 현대식 건축물에 밀려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옥의 구조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행랑채, 사랑채 등이 있고 마당과 중앙에 안채가 있다. 사대부 집에서는 남녀가 구분해서 각각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자체가 구분되어 있기도 하다. 집뒤의 산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게 집을 지어 우리의 생활이 자연 속의 일부로 삼입되도록 하였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온하고, 여름에 시원하도록 지붕에 흙을 개어 얹고, 그 위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붕을 만들었다. 대갯집에서는 기와를 올렸고, 농촌에서는 초가지붕을, 산간지역에서는 너와집을 짓기도 하였다. 온돌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천장과 지붕을 단단히 만들고, 밖에서 외풍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지방이 높아졌다. 문지방은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다. 평상시에는 앉아서 생활하고 잠을 잘 때는 따뜻한 공기가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문지방 높이가 설정되었다. 그 결과 두사람이 포개서 자도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되었다. 사생활의 보호에 일조를 하게 된 셈이다. 보온은 부엌에서 불을 때며 취사를 하고, 그 열기가 구들장을 통해서 방의 공기를 데워주고 굴뚝을 통해 연기가 나간다. 취사와 방안의 보온, 그리고 한옥의 가장 큰 취약점인 구들장의 습기를 동시에 제거하는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구조인 것이다. 치마를 입고 아궁이에서 불을 땔 때 풍부한



전통가옥의 조형미

원적외선이 나와 부녀자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위생적이고 건강을 배려한 불을 때고 취사를 하는 구조로 인하여 부녀자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불편함에 못지 않은 더 많은 이로움이 숨어져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너무도 편안함을 추구하며 작은 수고마저도 마다하고 있으니,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방은 구들을 얹은 위에 황토 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초배지를 바르고 기름먹인 창호지를 두세겹 발라서 질기게 만든 다음에 콩을 물에 불려 갈아 들기름과 섞어서 방바닥에 문질러 콩담을 했다. 요즈음 말로 니스칠을 한 것이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미생물이 살기 어려워 위생적인 장판이 되는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구들장과 황토에서 원적외선이 펄펄 나오고,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어깨 허리를 지질 수 있으니 황토방에 따로 갈 필요가 없다. 왜 이러한 한옥 집을 마다하는 것일까?

내포제 시조



박병규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 회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내포제는 충청도 지방, 그 중에서도 부여·공주·천안·홍성·조치원·예산·청양·서천·보령·대전 등지에서 활발하게 불려지고 있다. 내포제의 장점은 다른 제에 비해 창(唱)의 고저(高低)와 완급(緩急)이 자연 합리적인데, 이것이 마치 천지이치(天地理致)와 같다는 것이다.

본제(내포제)를 전승·체계화한 명인은 청양의 윤종선 선생인데, 그는 덕망과 재질을 겸비하고 평생을 후배 양성에 전력한 분이다. 그의 수제자인 소동규 선생은 약관부터 시조에 심취하여 문하생으로 입문하였다. 현 지방문화재인 선생은 사비까지 보태어 시조회관을 건립하고 여생을 후배양성에 진력하다가 1990년 타계하시었다. 소동규 선생 타계 5주년인 1995년 이후 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의 예능 보유자인 김원실 선생이 현재의 내포제 시조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후계자로 본인이 지정되어 김원실과 함께 내포제 시조의 보급·연구·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내포제 시조 창법의 실제

□ 시조창의 음계

평시조·사설시조의 기본 3음 음계는 완전 4도·장2도의 음 간격을 바탕으로 하며 황중(黃),

중려(仲), 임중(林)이다.



《평시조·사설시조의 음계》

경제의 지름은 평시조의 구성음인 황중(黃), 중려(仲), 임중(林)의 3음을 중추로 하되 임중(林), 청황중(淸黃中), 청태주(淸 태 주), 청중려(淸 중 려)로 4음을 변조하여 음역을 넓히고 있다.



《지름시조의 음계》

그러나 향제(鄕制)는 완전4도·단2도로 임중을(林) 한음 내려 유빈(蕪賓)으로 하여 부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다른 시조와 마찬가지로 내포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장의 박자 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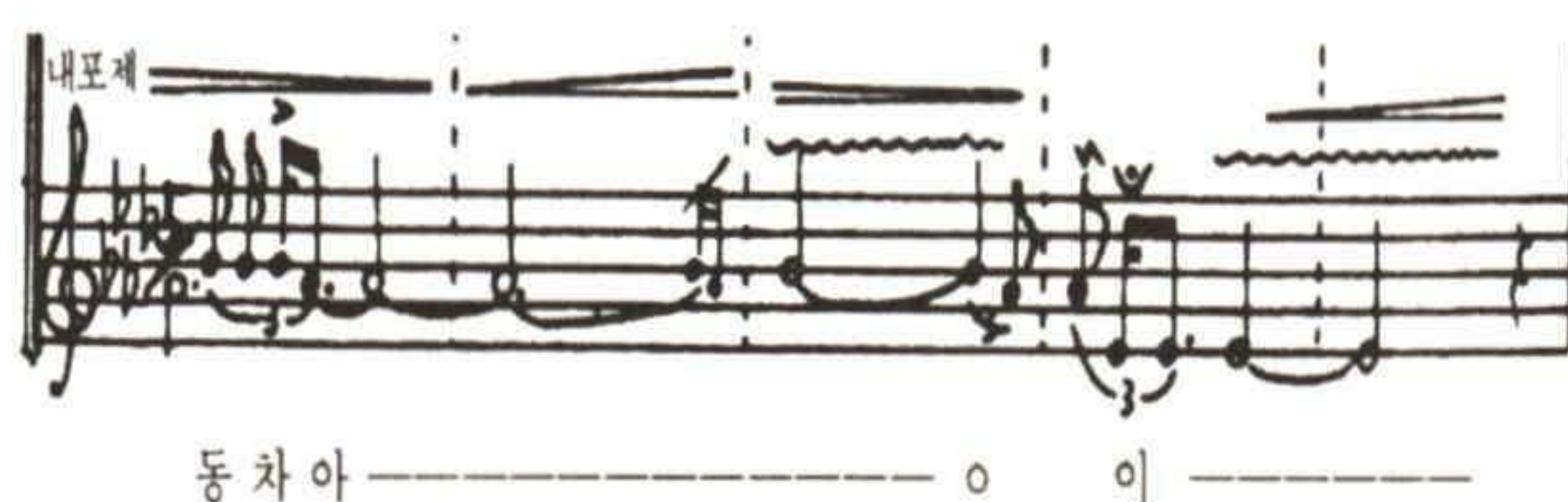
초장 5·8·8·5·8 박자

중장 5·8·8·5·8 박자

종장 5·8·5·8(실제는 한 박)

이제 아래에서 내포제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1각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5선 위에 채보나 음악의 구체적인 설명은 서한범 교수가 '내포제 시조와 경제 시조의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단국대 공연예술 연구소에 기고한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 초장 1각



초장의 1각은 5장 구성으로 첫 음을 내기 전 임중(林)을 거쳐서 중(仲)을 낸 다음 제3박에 가서는 위로 올려 덜고, 4박에서는 황(黃)으로 하강하게 된다.

3박의 요성은 소리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1~2박에 긴장하였다가 3박에서 이완으로 흘러버리지 않고, 4박에서 한 번 살짝 부딪혔다가 다시 이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이 대목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창법에 있어서도 첫 박을 내보내고 바로 다음 자가 노래되어 글자 붙임에 색다른 맛이 있다.

처음에는 창법을 일부러 조작하는 척 하지 말고 풀 속에서 쭉 나오는 뱀과 같은 격조로 편안히 노래한다.

2) 초장 2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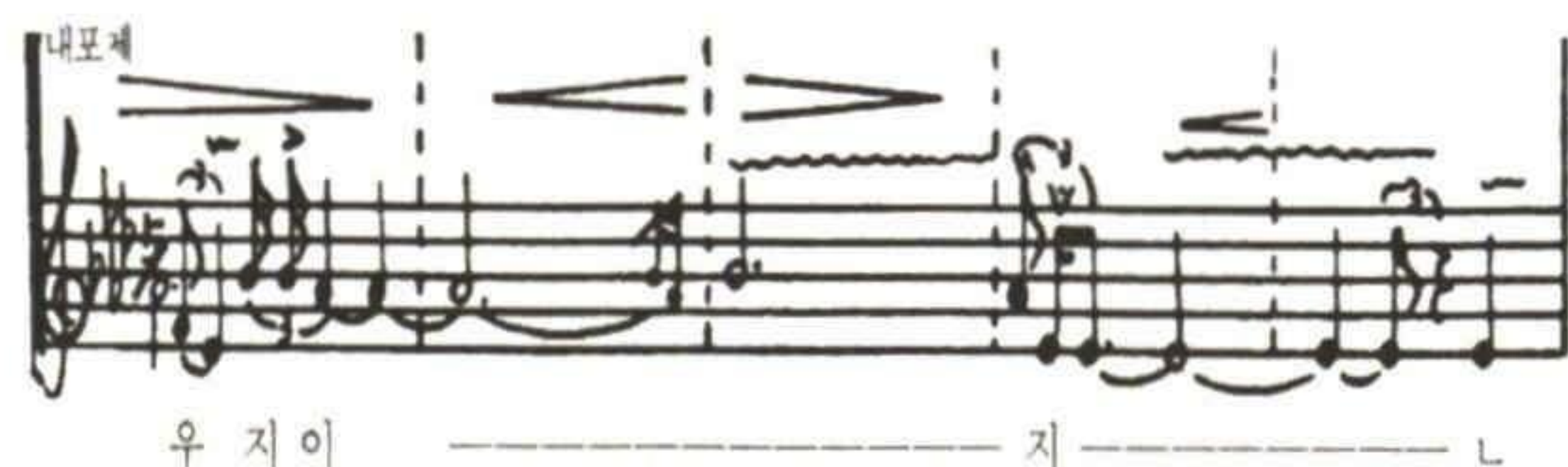
8박 구성으로 잔가락을 넣어 진행하며 1각처럼 모음을 잡고 진행시키는 창법이 특이하며, 3~4박부터는 음을 조금 끌어올려 요성을 한다. 마치 솔개가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방향을 바꾸어 나는 느낌으로 노래한다.

3) 초장 3각



역시 8박 구성으로 장식음들이 붙고 제 5박에서는 하진 후에 잘게 요성하여 낮은 음으로 8박을 맺는다. 희미한 연기에 가린 아련한 불빛처럼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격조이다.

4) 초장 4째각



1각처럼 5박으로 구성되며 제1각의 열처럼 2박까지는 긴장, 3박부터는 점차 약하게 요성, 제 4박은 꺾는 목을 구사한 뒤 안정성 있게 4도 아래인 Eb으로 떨어져 잔잔한 요성을 한다.

4각의 1박에서도 <우지>를 낸 다음 <이> 모음을 다시 잡고 가는 창법이 있다. 제 5박에서는 Eb을 다 쓰지 않고 초장의 종지선율의 연결을 위해 숨을 쉰다. 그리고 <지> + <인>의 발음법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음법은 시조창의 특징이라 하겠다.

5) 초장의 5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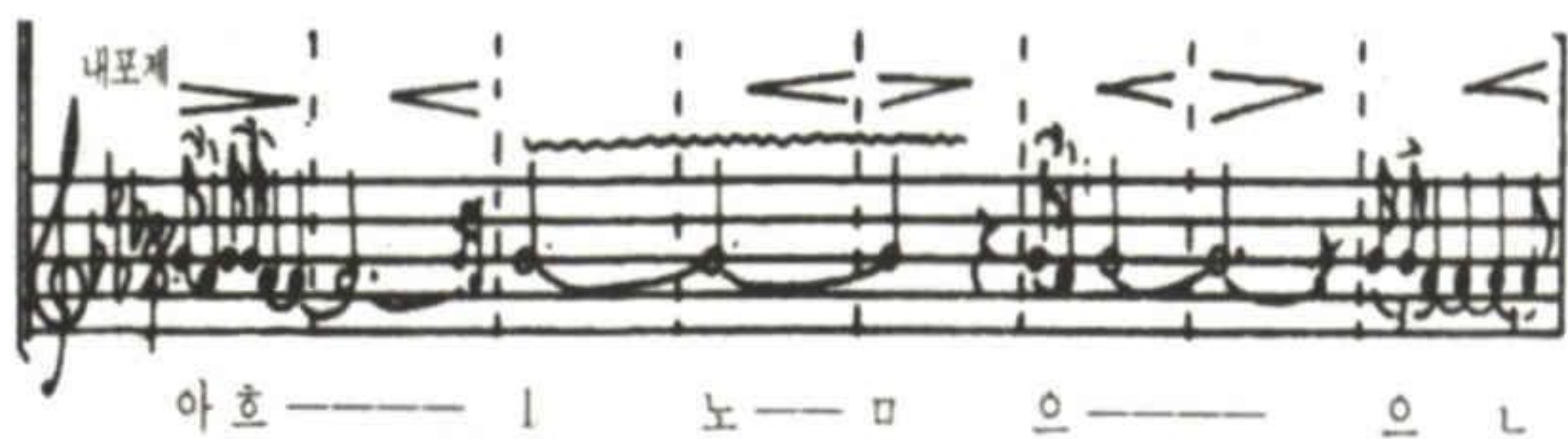
초장의 종지형인 5각은 8박의 구성이다. 6박에서 종지하며 반주 악기가 있으면 7~8박을 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중장으로 들어간다.

6) 중장의 1각



5박 구성으로 Bb으로 시작하여 3박을 지나 5박에서 Ab으로 안정한다. 평지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 같은 격조이며, 〈소치는〉의 가사를 붙여 뜻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7) 중장의 2각



8박 구성으로 Ab에 장식음이 붙고 제3음부터 약간 높여 평이하게 요성을 한 뒤 제 8박에서 다시 Ab으로 내리며 속청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래 전통의 남성성악곡에서 속청은 사용되지 않으나 경제에서는 이 부분에 속청을 사용한다.

이 사실은 내포제가 시조의 원형에 가깝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8) 중장의 3째각



8박으로 되어 있으며 제2박에서 곧바로 〈괴〉를 내고 〈이〉는 단음을 잡고 나가다가 5박 끝에서 〈아니〉의 ‘아’와 연결된다. 긴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격조로 부른다.

9) 중장의 4째각



5박 장단으로 Ab - Eb - Ab의 비교적 단순한 진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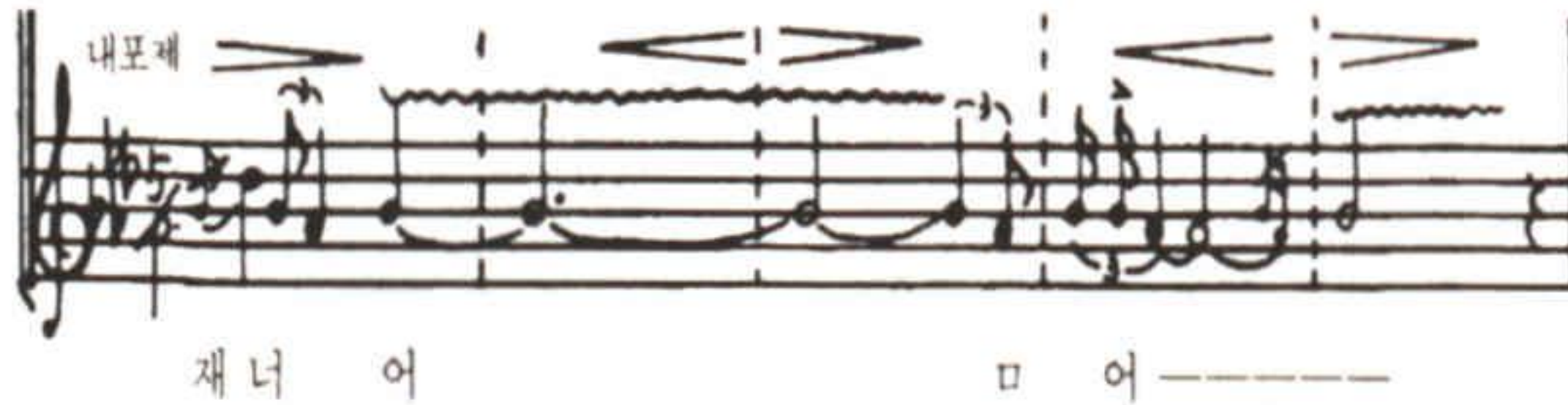
3박 끝에서 숨을 쉰 뒤에 ‘느’를 먼저 내고 4박으로 연결되며 5박을 약간 올려 잔잔한 요성을 준다.

10) 중장의 5째각



종지형(終止形)을 알 수 있는 각으로 8박 구성이다. 전각으로부터 이어지는 A♭ 음에 <냐>를 붙여 제 4박에 종지한다. 이 종지형은 A♭ → E♭ 으로 단순하여 조용하고 담백한 맛이 있다.

11) 종장의 1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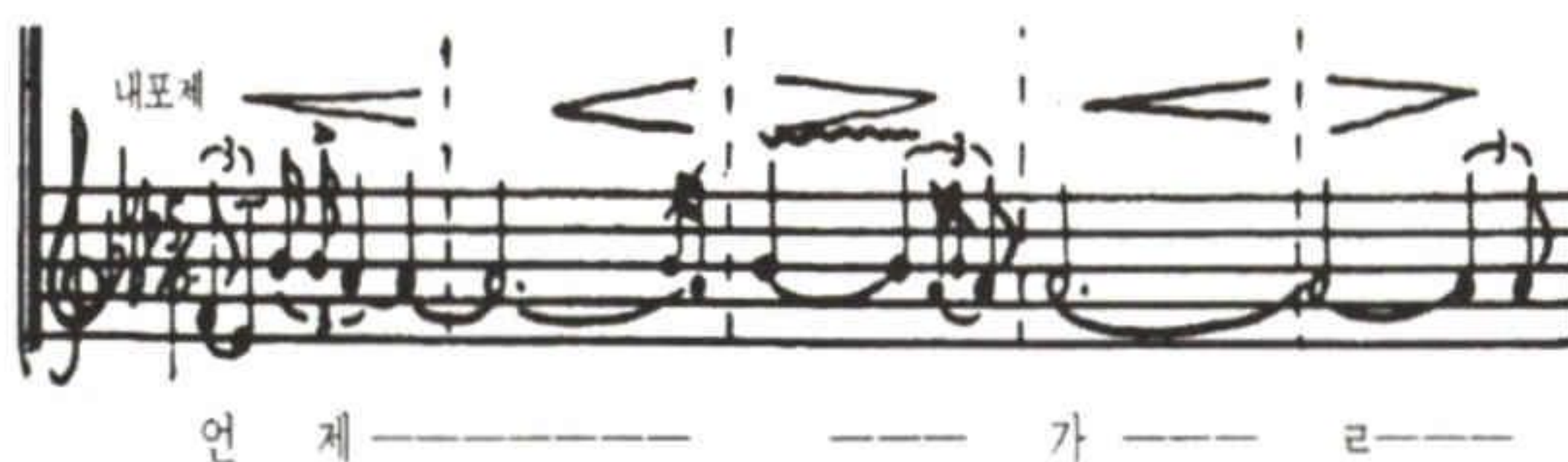
5박 구성으로 1박에 D♭ 음이 유일하게 출현하는데 이 음은 전타음적인 성격이 짙다. 또한 <재너> 라고 붙여서 발음하여 가사가 명쾌하다.

12) 종장의 2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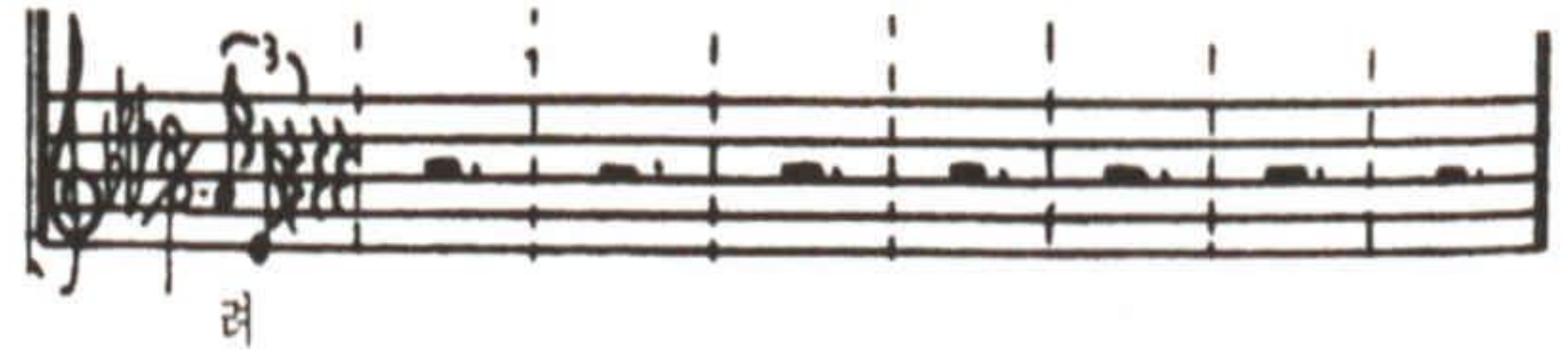
8박 구성으로 첫박·4박·5박으로 진행되는 선율들에 현란할 정도의 많은 시김새가 붙어 있어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13) 종장의 3째각



5박 구성으로 첫박에 가사를 붙여 가사가 명쾌하며 잔가락이 많다.

14) 종장 4째각



8박 구성으로 시조의 종지각이다.

시조의 종지형은 A♭ → E♭ 의 4도 하행인데 이는 완전한 종지의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튼튼한 반석위로 자아(自我)에서 돌아와 안정하는 종착의 격조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내포제 시조에 나타나는 꾸밈음, 즉 시김새의 특징은 소리를 밑으로 숙이며 위로 올리고, 음량은 곧게 민다.

△ -- 타루(배자법)

----- 뻗어가는 소리 전성

~~~~~ 제자리 흔들리는

----- 준정성은 준비하는 전성

^^^ 질 떠는 전성은(애원성)

===== 세성은 뻗는 소리는(배속에서 나오는 소리)

또한 발음법에는 아래의 몇 가지 변화형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정가에 보이는 일정한 규칙과 동일하게 발음되며, 이러한 발음들이 가곡이나 시조에서 느낄 수 있는 매우 깊은 묘미라 하겠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단모음 변화

아-아으 어-어으 오-오우 우-우으 으-으 이-이

② 중모음의 변화

야-야으 여-여으 요-요우 유-유우

③ 이중 모음의 변화

의-으이 외-오으이 위-오우이

## 용봉산 ①



조원찬 결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우리가 살고있는 홍성, 우리는 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홍성을 모른다면 어느 누가 홍성을 알아줄까? 마음 아픈 일이다. 홍성에는 선사시대 이래 무수히 많은 유적·유물이 남아 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인 가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 자원이며, 공해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모른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사는 곳도 잘 모르면서 여행하면 먼 곳, 가보지 못한 곳부터 찾는다. 이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홍성에 오도록 하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홍성의 역사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층층의 기암절벽이 금강산과 비슷하다 하여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우는 용봉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용봉산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즐겨 찾는 명소로서 홍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았던 곳일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산행(山行)을 하였을까? 혹시 용봉산의 본래 이름은 알고 있을까? 용봉산을 오를 때 단지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는 이유 외에 홍성의 역사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는 그 내면의 내용을 알아보는 계기를 가져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용봉산의 내력에 대하여 알아본다. 용봉산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 - '용봉산'일까? '팔봉산'일까?

용봉산이란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시기인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洪城郡誌)》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홍성군지의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용봉산은 일명 팔봉산이라 한다.

- ② 이 산은 읍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리 반의 거리에 있으며 홍북면 중계리, 상하리, 궁경리 등지에 걸쳐 있다. 예산군 상교면·덕산면과 경계를 이룬다.
- ③ 산 중북에 용봉사가 있고, 남쪽 끝 산측에는 고려시대 석불(상하리)이 있다.
- ④ 모든 산이 기암으로 펼쳐져 있어 굽강산과 같아 이야기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홍주의 소금강이라고 불렀다.

이에 따르면 용봉산은 홍주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용봉사와 상하리 석불이 있고, 홍주의 소금강이라 불리울 정도로 기암이 멋들어지게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용봉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는 이유는 같은가 보다.

그런데 앞의 기록 가운데 ①에 의하면 용봉산은 또 다른 이름으로 팔봉산이라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팔봉산은 또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시대의 지리서를 찾아보았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불리왔던 용봉산은 조선초의 기록에도, 조선조 후기의 기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같은 위치에 팔봉산(八峰山)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봉산은 본래 팔봉산으로 불리웠는데 1925년 이전의 일제시기 언제부터인가 용봉산으로 불리웠음을 시사한다.

#### - '용봉산'은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이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용봉산은 용봉사란 절이 있는 산이어서 용봉산일까? 세간에 전해지듯 수려한 기암이 용과 봉황을 닮았다하여 용봉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속뜻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여기에도 적용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 그 동안에 있어 왔던 우리나라의 자연 지리적인 마을 구조를 인위적인 행정 체계로 개편하였기 때문이다(예컨대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이에 흐르는 냇물을 경계로 마을을 둘로 쪼개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도(?)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이질감이 팽배하도록 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산줄기인 팔봉산도 홍성군 소속의 용봉산과 예산군 소속의 수암산으로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즉 홍성군에 속한 산은 용봉사가 있는 산이라서 '용봉산'이요, 예산군에 속한 부분은 수암사가 있어 '수암산'이라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산줄기이지만 일제는 허리를 두 동강 낸 후 용봉산과 수암산으로 굳이 구분하였던 것이다. 술한 의문 속에 필자의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가 뭉친다.

#### - '용봉산'의 본래 이름은 '팔봉산'이다?!

그러면 용봉산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 기록으로 전하는 용봉산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시기에 간행된 1925년 간행의 《홍성군지》에서 비롯될 뿐, 조선시대와 구한말의 홍주읍지류에는 전

요컨대 지금의 용봉산은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 조선시대에는 팔봉산(八峰山)이라 불리웠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지던 1925년 이전의 어느 날 갑자기 한 몸, 한 줄기  
기암괴석(奇巖怪石) 자랑하던 팔봉산은 억지로 허리가 잘린 채 두 개의 이름이 붙여졌다

혀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용봉산이란 이름 대신 지금의 용봉산의  
위치에 팔봉산(八峰山)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이라 불리우는 산이 있어 주목된다.

먼저 팔봉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선초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홍주목 산천(山川)조에 홍주의 북쪽으로 8리 지점에 팔봉산이 있다.
- ② 홍주목 봉우(佛宇)조에 청송사(靑松寺)와 용봉사(龍鳳寺)가 모두 팔봉산에 있다.
- ③ 덕산현 산천조에 덕산현의 남쪽으로 5리 지점에 팔봉산이 있다.
- ④ 덕산현 봉우조에 수암사(水菴寺)가 팔봉산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조 후기에도 다르지 않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하면, 홍주목조에 홍주  
목의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팔봉산이 있음을 기록하였으며, 덕산현조에도 덕산현의 남쪽으로 역시  
팔봉산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지금의 용봉산 위치에 팔봉산이 있는 것  
이다. 언제부터, 왜 팔봉산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 용봉산  
은 죽~ 팔봉산으로 불리웠다.

팔봉산! 세인(世人)들이 생각하듯 금강산에 비유될 만큼 기암 괴석이 수려한 산! 용이 꿈틀대듯,  
봉황의 화려한 모습이 일 듯 우뚝 우뚝 솟은 기괴한 봉우리가 여덟 개(?)인 산! 그래서 팔봉산(八峰  
山)에는 통일신라시대 이래 마애불과 석불이 조성되는가 하면, 용봉사·청송사·수암사 등의 사찰이  
있어 세상 사람들의 안식처로 오래오래 자리 매김 된 명산이라 할 수 있다.

- 고려시대의 북산(北山) → 팔봉산(八峰山) → 용봉산(龍鳳山)

한편 지금의 용봉산은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사의 지리지에  
따로 산천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고려의 무신정권 시기에 홍주지역에

서 있었던 최향의 반란 내용 가운데 북산(北山)이 있어 주목된다.

먼저 고려사 열전 제42 반역3 최충현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최향(최충현의 아들, 최우의 동생)은 이때(고려 고종17년, 1230) 수십명을 데리고 북산(北山)으로 도망쳐 몰나갔다. 고을 사람들이 병정을 데리고 그를 포위하였다. 최향은 말하기를, ‘우리형이 여러 해 부르지도 않고 또 고을 원에게 나를 잘 보호하고 대접하라는 부탁도 없어서 ... 나를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후회막급이다’라고 하였다.
- ② 해가 저물자 최향의 하인들은 모두 도망가고 최향은 갓 바늘 몰아서 바위 벼랑에서 떨어져 동굴 속에 숨었다가 추적하는 병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칼로 제 목을 찌르고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을 병정들이 붙잡아 가두었더니 옥중에서 죽었다.”

앞의 내용에서 ①에 따르면 북산은 최향이 반기를 들었다가 여의치 않아 피신한 곳이며, 반역을 일으킨 후 절박한 상황에서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방어하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②에 따르면 북산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졌고, 벼랑 끝에 동굴이 있는 산이다. 아울러 북산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할 때 북산(北山)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산은 한자를 풀이하면 홍주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북산은 홍주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벼랑 끝에 동굴이 있는 바위산이며, 적은 병력으로도 쉽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어디일까? 우선 홍주의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바위산이라 한다면, 고려시대의 북산은 조선시대의 팔봉산(八峰山), 즉 지금의 용봉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산, 팔봉산, 용봉산은 각각 그 시기와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홍주의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바위산으로 기암(奇巖)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용봉산에는 정확한 축조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용봉사를 중심으로 한 포곡식의 산성과 함께 지금의 덕산면 방면의 북쪽 끝 계곡에는 정교하게 쌓여진 성벽이 남아 있으며, 산의 전체적인 자연 지세가 그대로 천연의 요새를 만들고 있음은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병력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고려시대의 북산은 바로 지금의 용봉산이다.

요컨대 지금의 용봉산은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 조선시대에는 팔봉산(八峰山)이라 불리웠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지던 1925년 이전의 어느 날 갑자기 한 몸, 한 줄기 기암괴석(奇巖怪石)을 자랑하던 팔봉산은 억지로 허리가 잘린 채 두 개의 이름이 붙여졌다. 그 이름은 조선시대이래 고찰(古刹)이었던 용봉사와 수암사의 이름이 도용되었고, 결국 홍성군 소속의 산은 용봉산으로, 예산군 소속의 산은 수암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용봉산과 수암산이 존재한다. 하나의 몸으로 태어나 하나로 살지 못하고, 물리적인 강제로 인한 허리 잘린 팔봉산이 되어 버린 것이다...☆

## 담 안 토끼 이야기



고광철 수필가 · 한국문협 홍성군지부 회원

작년 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서산구치지도 안마당 가득 잔디를 심고 나니, 저녁이면 주변 물 논에서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유별나게 들리는 초록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었다.

서산구치지도의 외관 모습은 무슨 연구소처럼 현대식으로 지어졌기에, 밖에서 보면 기존의 교도소나 구치소 건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사면의 이어진 건물 안에 몇 백 평의 안마당이 있고, 그 곳에 잔디를 심고 소나무 몇 그루 심으니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생후 두어 달쯤의 새끼 토끼 한 쌍을 풀어놓았다. 그때부터 두마리 토끼는 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살았다.

잔디 사이로 자라는 잡풀을 뜯고 계단 사이 영산홍 꽃나무 사잇길을 뛰면서 생활했던 것인데, 여름이 지나 어느덧 가을 낙엽이 지면서 어미토끼로 성장해 있었다. 지나는 직원들이 가끔씩 건네주는 푸성귀 맛에 길들여져서 가까이 다가가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저들이 먼저 다가서기에, 역시 사랑과 보살핌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이었다.

제법 늙은 모습으로 자랐을 때는 벌써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때부터 화단 옆 계단 및 땅속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겨울에 지낼 보금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흰색의 암컷과 짝짓의 수컷이 교대로 굴을 팠다. 그곳은 계단 밑이었지만, 잔디밭보다는 지대가 높았기에 장마 때도 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는 곳이었다.

나는 출퇴근시 집 뒷밭 독이나 길가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이 먹을 풀을 뜯어야 했고, 아침마다 토끼 굴 앞에 그 풀을 놓아주었다.

나와 토끼들은 무언의 교감을 나누면서 살았다. 앞마당 잔디가 노랗게 물들고 찬서리가 내리던 날, 어떤 일인지 흰색의 암컷이 하루 이틀 짝 보이지 않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무심히 지나갔는데, 이튿날 무렵부터 다시 모습을 보이면서 먹이들을 왕성하게 먹어댔다. 이제는 그들도 담 안에서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 되어 이곳 수용자들과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12

처음 한두 마리씩 나와서 주변을 살피고  
 화들짝 놀래 재빨리 구멍 속으로 도망치던   
 새끼들도 며칠이 지나자 낮설어 하지 않고  
 어미 곁에서 부지런히 풀들을 먹고 있었다

월도 어느덧 초순이 지나던 그 날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였다. 전날이 휴일이기에 집 뒷밭에 그대로 파랗게 살아있던 잡풀들을 뜯고, 배춧잎도 함께 모아 얼추 한 자루 가까이 모아서 출근시 토끼굴 앞에 펼쳐놓았다. 바로 그 날, 뜻하지 않게 새끼 토끼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 이미 한달 전쯤 해서 굴속에서 태어난 새끼 토끼들이 젖을 떼고 나서 굴 밖 나들이를 시작했던 것이다.

나의 무심코 지나친 무관심이 한달 전부터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던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처음 한두 마리씩 나와서 주변을 살피고 화들짝 놀래 재빨리 구멍 속으로 도망치던 새끼들도 며칠이 지나자 낮설어 하지 않고 어미 곁에서 부지런히 풀들을 먹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모두 아홉 마리의 예쁜 새끼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수용자나 직원, 경교대 모두

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얼굴 가득 잔잔한 미소를 보낼 수가 있어 좋았다.

그러나 겨울은 점점 더 깊어 가는데 점차 왕성한 식욕을 맞추려면, 주변 산등성이를 헤매면서 남아있는 파란 풀과 칙닝쿨을 뜯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더 해야 했다. 봄이 오면 어미토끼 한 쌍만 남기고, 나머지 토끼들은 모두 뒷산에 풀어 방생시킬 생각이다.

뒷산 넓은 자연에서의 자유로운 삶은 이제 저들이 자유를 얻은 만큼, 스스로 수고스러움을 견디어 내야만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도 담 안에 갇혀 지내는 수용자들도 훗날 담 밖 세상에 나가는 날, 새롭게 변한 올바른 삶이 되어 스스로 수고스러움을 견디며 곳곳하게 일어서는 삶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겨울 바람이 분다.

겨울이 깊어 가면 봄이 가까이 오는 법. 새롭게 다가오는 봄은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더욱 화사하게 찾아올 것이다.☆

## 백두산을 다녀와서



최규원 | 홍성경찰서 구항파출소 경장

7월 10일, 둘째 날

모닝콜을 받아 눈을 떠 가볍게 세수를 하고 짐을 챙기고 난 다음, 침대에 우리나라 돈 1,000원권 지폐 1장을 살짝 놓아두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호텔로비로 나와 호텔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현지 측에서 마련한 버스에 몸을 싣고 백두산 천지를 향하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은 현지에서 장백산으로 불리고 있었다. 달리던 버스가 안도현 휴게소에 들어섰다. 잠을 청하고 있던 회원들이 눈을 뜨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아연해했다. 휴게소라는 가이드의 말에 우리나라의 휴게소를 연상했던 회원들의 눈앞에, 초가 앞마당에 포장을 치고 손님을 맞이하는 휴게소는 차라리 우리 농촌의 조그만 슈퍼보다도 못한 가게였다. 휴게소에서는 산삼과 약간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눈은 자연 산삼을 판매하는 곳으로 향했으며, 판매하는 사람들은 조선족 사람들이었다. 한 뿌리에 3만원이라며 산삼을 치켜들고 설명하는 판매원 앞에 회원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고, 몇몇 회원들이 구입하고 있었다. 약 20분의 시간이 흘러 차량에 탑승하여야 할 시간이다.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조금은 놀랐다. 눈앞에서 나이 먹은 노년의 두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말을 나누며 변을 보고있었다. 화장실은 문이 없고 옆면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변이 쌓여 있을 뿐, 어떠한 가림 막이 없었다. 남자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급한 불일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였으며, 우리네 보다 현저하게 뒤쳐진 그들의 궁핍함을 엿볼 수 있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우리민족인 한민족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말에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한참을 달린 버스는 안도현 송강진에 위치한 한립식당에 도착하였다. 이곳 또한 우리민족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도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어서 그런지 음식이 조금은 입에 맞았고, 식사와 함께 나오는 숭늉은 우리네 생활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듯이 너무나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식당 앞 길 건너편에 조그만 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백두산 안내도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을 팔고 있었는데, 이들 또한 조선족의 자손들로 궁핍

함을 엿볼 수 있어 즐겁지만은 못하였다. 그중에 생각나는 여학생이 그려진다. 키는 남들보다 월등히 컸으며, 몸은 바짝 마른상태였다. 다리는 소아마비인지, 양쪽으로 벌려서 힘들게 걸어다녔다. 손수건을 팔려고 하는 모습에, 살기 위하여 이곳 북간도까지 삶을 옮긴 우리네 선조들의 힘겨운 삶이 그려지는 듯 하였다. 송강진에는 아내가 없이는 살아도 장화가 없으면 못산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었다.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질퍽거리며 꼭 장화가 필요하다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12시에 버스는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백두산 입구에서

우리는 백두산 입구에 도착하여 현지 돈 100원을 지급하고 일본 미쓰비시 지프에 올랐다. 관광객을 백두산 천지까지 실어 나르는 차량에 6명씩, 3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백두산 천지를 향하였다. 백두산 천지를 향하는 길은 강원도 산길을 굽이쳐 만들어진 도로 마냥 굽이굽이 정상을 향하여 물결치고 있었다.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백두산 천지 옆에 도착한 차량에서 내려, 200미터 정도를 걷자 그곳에 천지가 있었다.

새하얀 안개로 덮인 우리의 명산, 백두산은 그 장엄함이 비상하는 용의 초리인양 하였다. 깎아지른 듯한 병풍바위들과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순간 아흔 아홉 칸의 부잣집 대문이 열리듯 천지를 뒤덮었던 안개가 사르르 열리며, 파란색의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가슴속에서 파란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하며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손을 뻗어 만지고 싶어, 발은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향하고만 있었다.

연중 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힘들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였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천지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던가? 높이 2749.4미터의 최고봉인 장군봉은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주어진 시간 30분이 되기 전에 하산하여야 했다.



안개속의 천지에서

백두산 천지에는 중국 군인들이 있었으며,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여도 우리나라 돈 4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수가 있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험난한 인상과 불친절한 언행에 조금은 서운함을 뒤로하고, 천지를 볼 수 있었던 하늘에 감사하며 다시금 차량을 이용하여 하산을 하였다.



장백폭포 앞에서 모두 함께

우리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장백폭포로 향하였다. 높이가 60미터의 웅장한 폭포 앞에 도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천지를 흘러내린 폭포가 화산 용암이 흘러 굳어진 바위를 타고 내리는 정경은 정말로 대단하였다. 떨어진 물줄기가 바닥에 부딪혀 튀어 오르는 모습이 폭포 주변을 온통 하얗게 물들이고, 다

시금 폭포를 오르려 애쓰는 모습처럼 보였다. 오르는 길에 군데군데 하얀 연기가 나오는 노천온천을 볼 수가 있었다. 관광객들의 일부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과 온천수에 계란을 넣고 익혀서 이를 판매하는 상인들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우리 일행들 또한 몇몇이 모여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지급하고 3개의 계란을 사서 먹어보았다. 약간 반숙으로 남아있는 계란은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폭포를 오르는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뇌산삼을 들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짓궂게 쫓아다녔다. 우리 일행들은 피로를 풀기 위하여 장백폭포 입구에 위치한 천상유황온천에 들었다. 온천은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약간 지저분하고, 하수도 비슷한 냄새가 역겹게 났다.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일행들은 일찍 샤워를 하고 그곳을 나왔다. 아마도 온천수를 정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러들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규모 또한 관광객들에 비하여 너무 작은 듯이 생각이 되었다. 온천을 나온 우리들은 산천어를 키우고 있는 백두산 입구의 조그만 식당에 도착하였다. 식당 옆에서 산천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키우는 곳에서 고기를 사서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에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회를 떠서 먹을 수 있었다.

또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는 여정을 풀기 위하여 백산대주점에 들었다. 주점이라고 하여 술이나 음식을 파는 곳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호텔이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씻고 싶었지만 물은 황토 빛을 심하게 띠고 있었고, 변기에서는 아예 물이 나오지 않았다. 가이드의 안내에 의하면, 백두산 관광지는 모든 것이 일년에 4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기 때문에 건물이나 물 등 모든 것이 타지에 비하여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1층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 앞에 천막으로 유랑민들처럼 막사를 지어놓은 커피숍에서 일부 회원들이 커피를 마셨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 2층에 위치한 가무청(노래방)에서 회원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흥겨운 마음을 뒤로한 채 이틀째 밤은 백두산에서 보냈다.◇

## 생명의 기원



김용신 수필가 · 김내과의원 원장

왜 사냐고 묻지 않는다. 살아갈 뿐이다. 가끔 내 주위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허무하다. 너무 허망하다는 자조 어린 푸념을 하고는 또 무심코 살아갈 뿐이다. 왜 태어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할 마음도 시간도 없다. 성공 지향적, 수입 지향적 사회구조와 풍조가 삶의 여유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없게 한다.

요즈음 복제인간이 화제다. 복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둥, 인간은 외계인의 복제품이라는 둥,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는 둥. 하여튼 생명이 창조의 신비로 남아 있다가 지구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자부심 내지 교만(?)에 차 있다. 그러나 복제한다는 것과 창조한다는 것은 도대체 비교가 안 된다. 그래도 생명의 창조작업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창조’를 운운하는 것이다.

생명의 기원은 어딘가? 지구는 지금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두 바퀴로 탐색의 궤도를 달리고 있을 뿐이다.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 정신은 물질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물질의 조합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생명이 된다?, 기본단위 세포가 곧 생명이다?, 세포의 조합이 생명체가 되고 비로소 정신작용이 생겨난다?, 정신작용은 반사작용의 진화에 불과하다?, 아니면 정신이 먼저 있고 정신의 구조(?)에 따라 육화(육체화)가 이루어진다?, 우주정신의 구체화가 물질세계이고 육화된 구조물에 정신이 내려앉는다? 모든 논의를 해도

생명의 기원은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 먼저 살자! 살아가자! 만들어 내고 계속 진화해 나가자! 이렇게 인류는 좌절 속에서 생산과 확대에만 열심이게 된 것 같다. 잘먹고 편리하게 살자! 진급하고 성공이나 하자! 그 외엔 모두 나중문제다.

인류는 갈수록 비종교적이 되어간다. 신앙의 형태는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껍질만 더 남아 흉내내기 신앙생활의 비천한 굴레로 멀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인간복제로 영원한 생명의 연장을 시도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상천국을 이루어보자는 허망한 노력이 있다.

그러나 생명은 불가사의 그 자체이고, 신의 영역이며 영원히 극복 못할 신비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자! 복제 운운하며 돈벌이에, 절대적 교주자리에, 세력확장에 여념 없는 교활한 자들의 농간에 속지 말자! 복제는 복제일 뿐이다. 쌍둥이가 태어나도 형제간이 아무리 닮아도 서로 다르듯이 복제는 또 하나의 생명의 탄생이며 창조의 꿈은 영역의 먼지도 못되는 하잘 것 없는 인간의 시도에 불과하다. 결코 개체 생명의 부활이 아니며 영생이 아니다. 복제인간이 성공할 지라도 또 하나의 쌍둥이 일 뿐이지, 결코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고뇌를 극복할 수 없다. 복제를 제공한 인간도 결국 만족 못하고, 영생을 못 얻으며 한숨쉬며 죽어갈 것이다. 유한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스릴 있으며 아름다운가! 저 별들 너머의 세상은 꿈으로 간직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자!

## 현실을 알고 내일을 가꾸려면?

지금부터 약 1만년전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농업시대 초창기의 지구상의 인구는 약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기원년에는 약 2억 5천만명으로 추산되었고, 그 후 서기 1650년에는 5억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로부터 160년 후인 1810년에 10억으로, 그리고 십억의 배가 된 것이 110년 후인 서기1920년에 20억의 인구였다. 그로부터 55년 후에 그의 배가 된 것이 1975년에 40억의 인구로 폭증되었고, 현재는 60억에 가까운 수치로 알고 있다. 2030년경엔 지구상의 인구총수가 85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생물체가 일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량을 넘었을 경우는 생물계의 자연소멸의 법칙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다.

지구상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는 80억까지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수치에서 상회 할 경우 지금도 나타나는 에이즈 등으로 알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사인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자연소멸의



지구

환난이 도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연히 인간성 부재로 인한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젊은이들의 과속에 대한 쾌감, 인간들의 체외수정, 더 비참한 것은 테러로 인한 무차별 주검들이 왜 생겨야 되겠는가. 그런가하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도 8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석유나 철강 등 모든 물자도 재고량에 한계가 있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인간들의 사고(思考)방식이다.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으로 발상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것이다.

인구론(人口論)을 쓴 말사스의 말이나 그보다 2천년 전에 한비자(韓非子)의 지론도 거의 비슷했다. 인구의 증가비율과 재화(財貨)의 불균형으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의 자원부족현상을 막을 길 없으므로 인간 범죄의 증가율 또한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옛말의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현실에서는 인간의 삶은 괴롭다(苦)는 뜻이다. 여기서의 무상

**“인생의 삶에서 보람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보람을 추구하는 삶일 것이다”**

은 덧없다거나 허무하다가 아니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무아는 모든 것이 독립이나 독존은 불가하고 서로 관계 속에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는 어떤 일에 몰두해서 자신을 잊는 경지를 뜻함이 아니고, 나와 모든 물체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새것은 낡아지고, 젊은이는 늙고, 있었던 것은 없어지고, 그대로 두고 싶은 것들은 파괴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괴롭다고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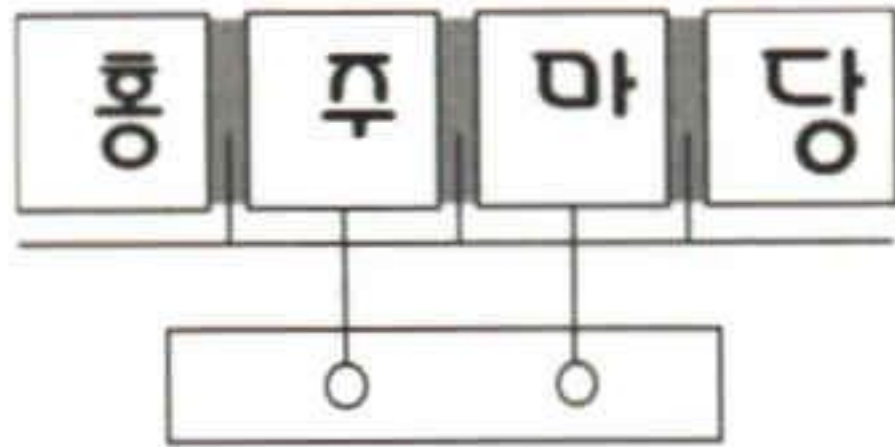
생각해보자. 지구가 탄생한지 45억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선조가 탄생한 것은 3백만년전이고, 현대의 호모사피엔스는 3만년전이라고 한다. 인간역사의 기록을 즉유사는 5천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인간들의 힘으로 지구는 우울해졌다. 오존층 파괴로 하늘은 부서져가고, 매연으로 공기는 숨막히고, 폐수로 물은 썩어가며, 온실효과로 해수면은 올라오고, 녹지대는 사막화되어가고, 기후의 대변동의 징후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때이다.

이제 우리는 현 위치에서 우리가 또는 내가 살아갈 앞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조용히 내 생활을 생각해 보고, 미래의 공생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삶의 풍요를 노려야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보람 있는 인생관을 정립해야 된다. 남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철학을 뜻하는 것이다. 인생의 삶에서 보람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보람을 추구하는 삶일 것이다.

개인적인 보람은 꼭 권력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는 것만이 보람이라 볼 수 없다. 나의 생각에 나의 처지와 환경에서 아름다운 보람을 정립할 수 있다. 꽃한송이 심어서 겨우내 앙상한 줄기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항상 가꾸는 그 심정이 보람이기 때문이다.



- 편 집 부 -



## 구름과 인간



김임무 **홍성읍 오관리**

흰 구름 위에 몸을 싣고 하늘을 마음껏 나르고 싶구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려나

하늘은 눈보라가 치고 한 많은 낙수가 퍼붓는구나  
인간은 왜 시기나 질투로 옷을 붉은 물로 적셔야하나

아! 많은 세월이 갔건만 인간은 인간을 속이고, 웃기고  
또 슬프게 만드는구나

상중하 인간은 같건만 이기와 질투  
아! 한 많은 세월 선견지명하고 서로 뭉쳐 화합하고 정직하여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마음이 변하면 흰 구름 같건만  
말 많은 인간 정직·근면·성실은 어디에 갔단 말인가

아! 지나간 세월 짧고 앞길은 멀기만 하구나  
우리 다 화합하여 굳건히 뭉쳐 나라사랑하세

## 『내포지역 현대미술제』의 위상(位相)

김정명 서양화가



공주에서의 연수교육을 마치고 바쁘게 전시장으로 향했다. 개회일 전날 저녁에 작품을 운반하게 되었다. 겨울의 찬바람이 목덜미에 스치며 몸을 움츠리게 했지만, 내일이면 이곳 홍주문화회관에서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웅의 말로(末路)처럼 붉은 해(海)가 저물어가는 2002년 12월 21일(토)부터 12월 25일(목)까지 홍주문화회관에서는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주관으로 『내포지역 현대미술제(The Naepo modern art festival in 2002)』가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개최되었다.

첫날인 12월 21일, 오후 4시부터 이곳 소강당에서는 홍석표 내포향토문화연구원장(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의 『내포지역 현대미술 발전을 위한 내포지방문화연계성』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물론 많은 화가들과 관계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청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 출품한 초대작가는 주최측인 한국미술

협회 홍성지부 정기전 회원 16명을 포함하여 42명이었다. 지역별 초대작가는 논산지역 2명, 홍성지역 3명, 예산지역 3명, 서산지역 4명, 보령지역 2명, 천안지역 10명, 공주지역 2명, 대전지역 7명, 군산지역 1명, 아산지역 5명, 당진지역 3명 그리고 홍성미협회원 16명으로 모두 11지역, 58명으로 분포되었다.

발걸음은 차분하게 2층 전시장을 향하고 있었다. 내부 전시장은 2층 계단 위 전시장으로 가는 통로의 한쪽 벽면을 온통 차지하면서 오밀조밀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전통미술작품과 현대미술작품의 교류전(交流展)으로 볼 수 있으며, 모두 58점의 많은 작품이 전시되었다. 벽면을 길게 차지하여(大作) 전시된 서예작품 1점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그 크기가 비슷하였다. 다만 사회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김정명작가의 작품과 故 이응노화백의 『군무(群舞)』와 유사한 분위기로 표현한 황선익작가의 작품은 연작으로 3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분야별로 전시된 작품은 사군자 3점, 서예 3점, 한국화(문인화 포함) 12점, 유화(수채화 포함) 31점, 도자기 공예품 4점, 판화 2점, 조소(목조 1점 포함) 3점이었다.

우선 소재(素材)는 화가들이 보통으로 즐겨 표현하는 대상(對象)이었다. 난초, 매화, 월드컵, 응원모습, 만다라형상, 나무기러기, 꽃과 향아리, 자연 풍경, 인물, 감나무, 연꽃과 연밥, 비단잉어, 산수, 고향, 소나무, 길, 돌, 바퀴, 인체, 물새, 포구(浦口), 고깃배, 물고기, 전통문양, 달, 사슴, 기하학적 형태, 문자 등이었다. 그리고 표현기법을 분석해 보면, 유화물감과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화면의 표면에 두툼하게 쌓아올린 질감, 거칠고 활달한 붓 터치, 자유분방한 필치, 닦아내기, 단순화, 추상기법, 세필법, 상감기법, 불기, 문지르기, 복사(인쇄), 굵고 깎아내기, 금속사용, 테라코타, 부분 굵어 파내고 없애기, 부적·골판지·붕대·나뭇잎, 고서지(古書紙) 조각 겹쳐 붙이기, 점묘법, 구름법, 물골법, 백묘법, 발묵법, 파묵법, 화면 분할법, 먹물 뿌리기, 흙칠, 수묵담채법, 수묵의 농담, 사실기법, 은박지에 인쇄기법, 물감 뿌리기, 크레파스 스크래치(바탕색이 보이게 긁어내기), 오브제 붙이기(새끼줄, 신문지, 흙, 석고 지푸라기 등), 무의식적인 낙서 선묘(線描), 캔버스 위로 실 뽑아 올리기, 투명기법과 불투명기법, 나이프로 굵고 펴지게 하기, 덧붙이기, 오브제로 눌러 찍어내기, 단선(單線) 겹쳐 칠하기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표현재료, 형태, 선, 구도, 색감, 양감, 재질감, 공간감, 여백의 미 등이 작품마다 다양한 양상(樣相)을 보이고 있었다.

재현적 구상작품은 32점, 표현적 구상작품은 19점, 실험성이 엿보이는 작품은 7점 정도였다. 개별적인 작가의 작품이 주는 느낌은 공통점이

있기도 하면서 독창성이 주는 특별한 정서도 향수(예술상의 미감 등을 음미하고 즐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미적 언어의 의미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강한 호소력을 전달하고 있었다.

흘러 번져 서로 얹혀 원형의 본질은 은폐하며 관계성을 형성, 엉킴과 헤어남, 자아상실과 자아의 남겨진 흔적들, 생물학적 느낌, 생존하는 자아의 확산적 의미, 분산된 파편의 흔적, 현실세계에서 응시하는 과거와 현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적막함, 외로움, 고독함, 희망, 소망, 꿈의 세계, 충만한 성(性)의 분출과 억제, 흥겨움, 무의식의 세계, 표류하는 독선적인 말들, 주변세계로 향한 자아, 파격적인 선무(線舞), 성적 갈망, 냉정한 사랑, 내밀한 자아, 안정감, 풍요로운 수화에 대한 기대감, 출생의 기쁨, 성숙, 질박함, 분열과 분파, 회상, 그리움, 상처와 치료, 평화와 행복, 한가함, 여유로움, 다정함, 은밀함, 겸손, 고요, 적막, 비밀에 대한 호기심, 열려진 자아와 닫혀있는 자아, 고고한 도전, 잔잔함, 여유로움, 과욕, 넘치는 자아에 피는 꽃, 새로운 만남의 갈망, 잊고 싶은 동심과 새로 꽃피우고 싶은 어린 시절, 향기가 없는 우수에 젖은 갈대의 순정과 은밀한 향기를 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 침착함, 발랄함, 침묵, 알 수 없는 비밀, 평안, 기다림, 고행, 과장(誇張), 조화, 배반, 혼란, 파격, 평화, 자유, 해탈, 만다라 등의 상징적인 미학적 어휘의 의미를 담은 창작품들은 긴밀하게 타자(他者)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부에서 외부의 정신세계로 향한 현존적(現存的) 자아로 독특하게 표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감각, 주제, 테크닉, 미술적 태도, 차용(借用), 사유(思惟), 상상력과 모호성, 대상에 대한 관찰·분석·통

우리들의 정신미술문화 발전과 열린 세계를 향해 신선한 몸짓으로

『내포지역 현대미술제』가 이상(理想)의 날개를 달고

지속적으로 웅비(雄飛)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찰·분해·해체, 창의성과 모방성, 물에 대한 인식적 이해 및 표현기법에서의 전개방식, 과학기술·수학적·문학적 개념, 실험성, 탐색, 연구, 재료의 특성, 표현 테크닉, 개별성의 열정, 우연성과 필연성, 해학성, 유희성, 화가의 자부심, 화가에 대한 재인식 등을 다시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전시공간에 비해 전시작품이 많았으며, 전시작품에 비해 전시공간이 좁은 형편이었다. 아무래도 전통미술작품과 현대미술작품을 1부와 2부로 분리하여 전시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그 이유는 전시장소 문제도 있었겠지만, 한국미협 홍성지부 회원전과 『내포지역 현대미술제』가 공동으로 전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작품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위로를 해 보았다.

앞으로 이 지역을 기점으로 『내포지역 현대미술제』의 고유한 특성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포지역 현대미술제에 관한 운영위원과 초대작가 선정과 지역적 분배, 전시 시기 및 전시장소와 전시디자인, 특강 등에 대하여 좀더 심사숙고하리라고 내다본다.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번 정신미술 문화행사에 대하여 모든 과정을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종결짓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화가와 청소년, 이웃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신 후원 단체와 후원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최측 관계자들은 어렵고 분주한 수고로움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자신감을 더 갖게 된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들의 정신미술문화 발전과 열린 세계를 향해 신선한 몸짓으로 『내포지역 현대미술제』가 이상(理想)의 날개를 달고 지속적으로 웅비(雄飛)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라도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갈등과 미움과 시기의 더럽혀진 낡은 옷을 벗어 던져보자! 그리고 진정으로 끊임없는 자아성찰로 편견과 오만의 늪에서 자신과 이웃을 건져내어 마음 밝은 새 세계로 향한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샌드위치



구명희 홍복면 봉신리

얇게 썬 빵 사이에 고기, 치즈, 야채 등을 끼워 넣은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한다,

명칭은 영국의 샌드위치 백작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전해지는데, 백작 집안의 4대손으로 태어난 샌드위치 백작은 30세 때 해군대장이 되었으나, 선천적으로 도박을 즐겨했다.

그는 트럼프에 한번 열중하기 시작하면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도박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늘 사환에게 빵 사이에 로스트비프나 그 밖의 요리를 끼워 넣게 하여 그것을 먹으면서, 상대방에게도 이를 권했으므로 이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의 유래이다.

지난 겨울에 시어머니의 팔순잔치가 있었다. 아버님의 생신이 그보다 약 보름 전에 있어서 동리 어른들을 식당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의 팔순 생신은 잔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예년과 같이 가족 친척끼리 간소하게 음식이나 나누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노인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들에게는, ‘아버님생신 차려드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힘들게 뭐 또 차릴게 있겠느냐, 절대로 차릴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딸들에게 전화하셔서 다른 집 할머니 팔순잔치에 초대되어서 가봤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나도 부럽더라, 나도 아들이 없나 딸이 없나 못할 것도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하고 속내를 드러내셨던 것이다. 아들들에게는 겉말을 하시고 딸들에게는 속말을 하신 것이었다.

어머님의 말속의 말을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그저 말로만 들었으니....

어머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더구나 원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이 마침 필리핀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무리를 하여 수속을 다 밟아놓고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팔순 잔치 비용을 마련하자니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실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더구나 부모님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가 모든 예약문제를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음식값이나 각종 부대비용이 여간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아시므로 드러내놓고 말씀은 못하셨지만, 현실과 바램사이에서 여전히 속내와 겉내를 적절하게 조화시켜가면서 당신의 소망을 전달하시기에 바빴고.....

드디어 잔칫날,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애처럼 너무 너무 좋아하셨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힘은 들었어도 ‘잔치 해드리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흐뭇한 생각이 절로 들었다.

만일 잔치를 못해 드렸으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면서 후회할 뻔했던 것이다.

효도란 것은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인생의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었다.

사실 막내딸의 필리핀 체험학습도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결정한 일이었었다.

대학 3학년이 되는 큰아들이 있는 데다 작은 아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못 보낸다고 수없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갈등했지만 결국 보내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막내딸의 단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엄마, 나 진짜 가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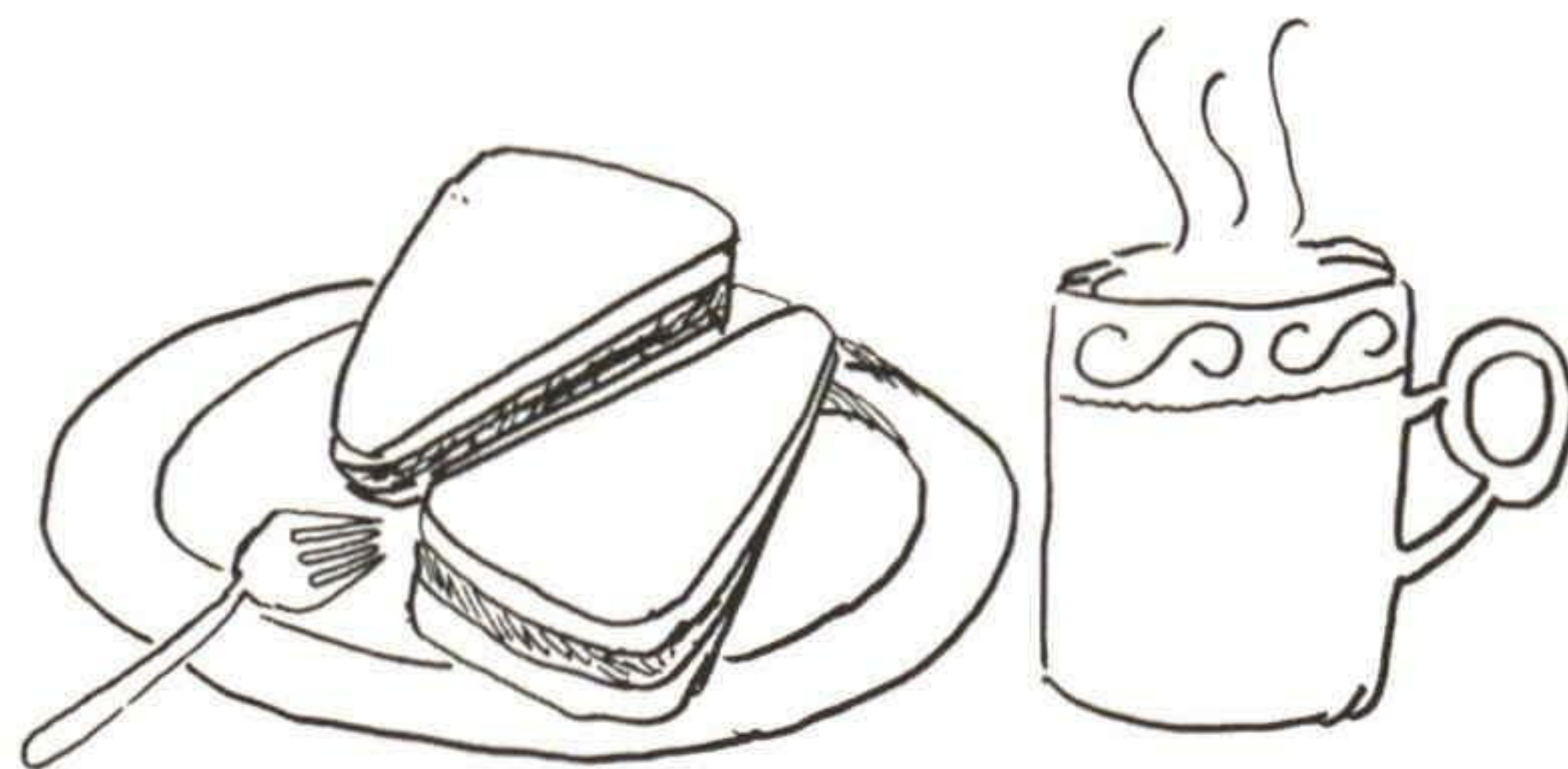
어머니의 말속의 말, 마음속의 말

"에미야, 나 진짜 하고 싶어"

막내딸의 감출 줄 모르는,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말

"엄마, 나 진짜 가고 싶어"

두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꿈쩍 못하고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자식과 부모의 도리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구명희씨의 남편 이업씨의 그림

어머니께 팔순잔치를 해드리고, 막내딸의 필리핀 여행을 보내면서 느껴졌던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나이는 샌드위치세대라는 것이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 그 사이에 끼인 우리세대.

이 두 세대의 욕구와 바램을 충족시켜줘야만 하는, 우리는 없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표현되어지고 그들의 잣대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있는 어떻게 보면 찌꺼기는 불쌍한 존재인 우리세대.

그러나 꼭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빵만 있고 속재료가 없다면 샌드위치는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속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급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천덕꾸러기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윗세대나 아랫세대가 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엄선된 고급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의 속재료가 되어야겠다.

샌드위치의 존재목적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맛있고도 즐겁게 먹히는 데에 있을 테니 말이다.



## 생활의 지혜

### 【프라이팬 닦는 방법】

☞ 음식물이 프라이팬에 눌어붙었으면 팬에 소금을 조금 넣고 불에 달군 다음 신문지나 종이로 닦아낼 수 있고, 프라이팬에 기름때가 배어 있을 경우에는 하루정도 직사광선을 쬐어 주면 기름때가 저절로 벗겨져 손쉽게 세척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프라이팬의 열기가 식기 전에 소주를 붓고 티슈로 문지르면 기름때가 깨끗이 없어진다. 또 밀가루를 약간 뿌려 닦아내도 기름기가 없어진다.

### 【옷의 정전기를 없애려면】

☞ 날씨가 차가우면 공기가 건조해지므로 정전기도 쉽게 발생한다. 정전기가 잘 생기는 옷은 욕실에 걸어두어 적당한 습기를 주면 정전기를 없앨 수 있고, 속옷을 입을 때는 면소재를 입는 것이 좋다.

### 【플라스틱 용기에 냄새가 배었을 경우】

☞ 플라스틱에 음식을 넣었다 꺼냈을 경우,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푸른 채소 잎을 썰어 용기에 넣은 다음, 뚜껑을 밀폐하고 하루쯤 두면 그 다음날 깨끗하게 냄새가 없어진다.

### 【오징어 데칠 때 색깔을 좋게 하려면】

☞ 삶은 오징어 요리는 오징어 색깔에 따라 식욕이 달라진다. 색깔을 좋게 데치려면 우선 끓는 물에 무를 얇게 썰어 넣고 한 동안 끓인 다음, 그 물에 오징어를 데치면 된다. 그러면 오징어 색깔도 선명해지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 【튀김기름 냄새 없애는 방법】

☞ 튀김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럴 때는 가열한 기름에 파의 녹색부분을 넣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기름 표면에 작은 거품이 많이 생길 때도 파를 넣으면 거품이 사라진다.

### 【달걀을 안 깨지게 삶으려면】

☞ 달걀 껍질이 깨지는 것은 찌는 과정에서 달걀이 그릇에 부딪치거나, 냉장고 속에 있던 달걀을 갑자기 뜨거운 물 속에 넣을 때 껍질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 때 끓는 물에다 소금을 약간 넣거나 식초를 서너 방울 떨어뜨리면, 달걀이 깨져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대로 잘 찌진다.☆

- 편 집 부 -

## 표지화 작가소개

### 황 선 익



-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 서울신형상전(한일교류전, 문예진흥원미술회관)
- 창형전(쌍인미술관, 중앙갤러리)
- 충남,북청년작가초대전(중앙갤러리)
- 4인의 형상표현전(갤러리인사이드)
- Hwang seon ik Drawing전(공간사랑, 수칼렛공간)
- 한국수채화대전기획초대전(한림미술관)
- 지역작가초대(자연의 美)전(공간 그린스)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시선전 회원
- 전람회그림기획초대전(그림공간)
- 마음으로의 표현초대전(갤러리形)
- 설치미술 '자연 그리고 삶'(홍주성야외공간)
- 지역작가교류초대전(갤러리 美林)
- 한국미술협회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공개누드크로키(홍주문화회관공간)
- 2002월드컵개최기념전국작가초대전(단원미술관)
- 심상의표현드로잉사이버전(WWW.hsiart.com)
- 2002내포지역현대미술제(홍주문화회관)
- 2002 Korean Arts Festival개인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2003 봄 100인작가초대전(아트센타)
- 현 한국미술협회홍성지부장, 충남수채화협회, 예지회, 내포조형예술연구소 대표
- 표지제목 : 『자연으로부터』

## 편집후기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던 겨울도 잠잠해 지고 있는 지금이다.

아직 아침이나 저녁 공기는 겨울 날씨만큼 차갑지만 얼굴에 스치는 공기의 상쾌함으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헐벗었던 나무들과 들판에 새록새록 파란 새싹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봄을 시작으로 인생의 출발을 다시금 시도해 보자.

## 홍성문화

2003. 봄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재범

발행일 2003년 3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041)632-2363)

##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주민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관

### ■ 회원가입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FAX : (041) 633-1199

##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향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한문교실, 닥공예인형교실, 서예교실, 주부노래교실,**  
**내고장역사교실, 전통문화사진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 강 좌 안 내 ▶

| 구분<br>요일별 | 프 로 그 램          | 시 간            | 과 정   | 내 용                                  | 회 비     |
|-----------|------------------|----------------|-------|--------------------------------------|---------|
| 월         | 서예교실<br>(2층)     | 오 후<br>2시~4시   | 9개월과정 | 서 예 기 본 부 터 배 우 기                    | 15,000원 |
| 화         | 한문교실<br>(1층)     | 오 후<br>2시~4시   | 3개월과정 | 기 초 생 활 한 자 교 육 및<br>명 심 보 감 강 의     | 15,000원 |
| 화, 목      | 닥종이인형교실<br>(1층)  | 오 전<br>10시~12시 | 3개월과정 | 종 이 를 이 용 한 인 형<br>박 품 만 들 기         | 20,000원 |
| 수         | 주부노래교실<br>(2층)   | 오 후<br>2시~4시   | 년중    | 가 곡, 국 내 가 요, 외 국<br>가 요 등 노 래 배 우 기 | 15,000원 |
| 목         | 전통문화사진교실<br>(1층) | 오 후<br>7시~8시   | 3개월과정 | 우 리 문 화 재 사 진 찍 는<br>기 본 배 우 기       | 15,000원 |
|           | 내고장역사교실          | 오 후<br>2시~4시   | 3개월과정 | 우 리 고 장 의 문 화 역 사<br>배 우 기 및 현 장 학 습 | 15,000원 |

■ 점 수 : 수시접수

■ 장 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 632-3613, 634-9659)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은 항상 여러분과 가깝게 있습니다 ●

## 할 미 꽃

〈개화기 : 4~5월, 결실기 : 6~7월, 용도 : 관상용, 뿌리는 약용〉



산과 들에 피는 할미꽃

우리나라 각처의 산이나 들의 양지에 나는 다년초. 전체에 긴 털이 밀생, 꽃줄기는 길이 30-40cm. 근생엽은 밀생, 긴잎자루, 5장의 작은잎으로 구성된 깃꼴겹잎, 작은잎은 깊게 갈라지고, 표면은 진한 녹색으로 털이 없음.

꽃은 갈래꽃, 긴 종형, 밑을 향해 피고, 길이 3cm 가량. 꽃받침은 6장, 겉면에 긴 솜털이 밀생, 안쪽은 털이 없고, 겉면은 자주색. 수술은 다수, 꽃밥은 노란색. 암술 다수, 자방과 암술대에 털이 있고, 총포는 3-4장이며, 꽃줄기를 둘러쌈. 열매는 수과, 암술대에 붙어 있음.

● 꽃이 필 때 굽어 있으니 젊어서도 할미꽃, 열매가 익으면 백발 노인의 머리를 연상시켜 늙어서도 할미꽃이라 하여 백두옹(白頭翁)이라 함.

제 길을 제 스스로 가게 밝혀주는



HONGSEONG CULTURAL CENTER

홍성문화원